

# MMCA Film & Video

국립현대미술관  
MMCA필름앤비디오

요나스 메카스 회고전  
Jonas Mekas Retrospective  
2017. 11. 22. — 2018. 2. 25.

**일시** 2017. 11. 24 (수) 오후 3시  
**장소** MMCA필름앤비디오  
**아티스트** 피프 초도로프  
 \*<프리 래디컬스: 실험영화의 역사>  
 상영 후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Date** Nov. 24, 2017 (Wed) 3:00 p.m.  
**Venue** MMCA Film and Video  
**Artist** Pip Chodorov  
 \*A Q&A session with the artist will  
 follow after the screening of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상영시간표 .....	6	Screening Schedule .....	10
서문 .....	16	Foreword .....	17
요나스 메카스: 세기의 눈 .....	18	Jonas Mekas: Eye of the Century .....	20
작가 소개 .....	22	Biography .....	22
<b>프로그램 1</b> .....	24	<b>Program 1</b> .....	24
- 슈팅 건즈 .....	24	- Shooting Guns .....	24
- 건즈 오브 더 트리즈 .....	25	- Guns of the Trees .....	25
<b>프로그램 2</b> .....	26	<b>Program 2</b> .....	26
- 타임 앤 포춘 베트남 뉴스릴 .....	26	- Time and Fortune Vietnam Newsreel .....	26
- 영창의 촬영현장 기록 .....	26	- Shooting the Brig .....	26
- 영창 .....	27	- The Brig .....	27
<b>프로그램 3</b> .....	28	<b>Program 3</b> .....	28
- 월든 (일기, 노트, 스케치) .....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	
<b>프로그램 4</b> .....	29	<b>Program 4</b> .....	29
-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 .....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	
<b>프로그램 5</b> .....	30	<b>Program 5</b> .....	30
-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		- Lost Lost Lost .....	
<b>프로그램 6</b> .....	31	<b>Program 6</b> .....	31
- 사이에서 .....	31	- In Between .....	31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	32	- Notes for Jerome .....	32
<b>프로그램 7</b> .....	33	<b>Program 7</b> .....	33
- 천국은 아직 여기에 (세 살을 맞이한 우나) .....		- Paradise Not Yet Lost (a.k.a. Oona's Third Year) .....	
<b>프로그램 8</b> .....	34	<b>Program 8</b> .....	34
-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사막에 서 있다 .....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	

<b>프로그램 9</b>	35	<b>Program 9</b>	35
-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	35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35
- 제피로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	36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36
-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	36	- Happy Birthday to John	36
- 천국의 이편: 미완성 전기의 단편들	37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37
<b>프로그램 10</b>	38	<b>Program 10</b>	38
- 우연히 나는 아름다움의 섬광을 보았다		-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b>프로그램 11</b>	39	<b>Program 11</b>	39
-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		- A Letter from Greenpoint	
<b>프로그램 12</b>	40	<b>Program 12</b>	40
- 마틴 스콜세지에 관한 노트		- Notes on an American Film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b>프로그램 13</b>	41	<b>Program 13</b>	41
-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호세 루이스 게린		- Correspondence: Jonas Mekas—José Luis Guerín	
<b>프로그램 14</b>	42	<b>Program 14</b>	42
- 회신: 마키우나스 & 플럭서스		- Re: Maciunas & Fluxus	
<b>프로그램 15</b>	43	<b>Program 15</b>	43
- 잠 못 드는 밤 이야기		- Sleepless Nights Stories	
<b>프로그램 16</b>	44	<b>Program 16</b>	44
-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윌리엄스버그		- Williamsburg	
<b>프로그램 17</b>	45	<b>Program 17</b>	45
-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45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45
- 카시스	45	- Cassis	45
- 하레 크리스슈나	46	- Hare Krishna	46
- 밀브룩에서 온 소식	46	- Report from Millbrook	46
- 여행 서사시	47	- Travel Songs	47
- 사중주 1번	47	- Quartet Number One	47
- 아비뇰의 노래	48	- Song of Avignon	48
-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	48	- Anthology Film Archives	48

<b>프로그램 18</b>	49	<b>Program 18</b>	49
-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	49	- Film Magazine of the Arts	49
- 에릭 호킨스: <지금 여기서 바라보다>에서 발췌 / 루치아 틀루고세프스키 연주	50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 Lucia Dlugoszewski Performs	50
-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51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51
-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	52	- Cup/Saucer/Two Dancers/Radio	52
- 거리의 노래	52	- Street Songs	52
- 서커스에 대한 기록	53	- Notes on the Circus	53
- 불완전한 세 개의 이미지	53	- Imperfect 3-Image Films	53
-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	54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54
- 오래된 동화	54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54
<b>프로그램 19</b>	55	<b>Program 19</b>	55
- 할렐루야 더 힐즈		- Hallelujah the Hills	
<b>프로그램 20</b>	56	<b>Program 20</b>	56
- 프리 래디컬스: 실험영화의 역사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b>프로그램 21</b>	57	<b>Program 21</b>	57
- 요나스	57	- Jonas	57
- 언더그라운드 뉴욕	58	- Underground New York	58
<b>프로그램 22</b>	59	<b>Program 22</b>	59
- 사막의 요나스		- Jonas in the Desert	
<b>프로그램 23</b>	60	<b>Program 23</b>	60
- 정글의 요나스		- Jonas in the Jungle	
<b>프로그램 24</b>	61	<b>Program 24</b>	61
- 계절들		- The Seasons	

상영 시간표

2017. 11. 22. — 2018. 2. 25.

	등급	작막
	⑥ 전체 관람가	㉫ 한국어
	⑫ 12세 이상 관람가	㉥ 영어
	⑮ 15세 이상 관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b>11.22</b> <b>16:00</b> ㉫ <b>프로그램 1</b> (88min) - 슈팅 건즈 - 건조 오브 더 트리즈  <b>18:30</b> <b>프로그램 23</b> (99min) - 정글의 요나스	<b>23</b> <b>16:00</b> ㉫ <b>프로그램 2</b> (78min) - 타임 앤 포춘 베티남 뉴스릴 - 영창의 촬영현장 기록 - 영창	<b>24</b> <b>15:00</b> ㉫ <b>프로그램 20</b> (82min) - 프리 래디컬스: 실형영화의 역사  <b>아티스트 토크: 킵 초도로프</b>	<b>25</b> <b>14:00</b> ㉫ <b>프로그램 10</b> (288min) -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의 성광을 보았다  <b>*10분간 인터미션</b>	<b>26</b> <b>14:00</b> ㉫ <b>프로그램 24</b> (71min) - 계절들  <b>16:00</b> ㉫ <b>프로그램 4</b> (82min) -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
<b>29</b> <b>15:00</b> ㉫ <b>프로그램 12</b> (80min) - 마틴 스콜세지에 대하여  <b>17:30</b> ㉫ <b>프로그램 5</b> (178min) -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b>30</b> <b>15:00</b> ㉫ <b>프로그램 15</b> (114min) - 잠 못 드는 밤 이야기	<b>12.1</b> <b>16:00</b> ㉫ <b>프로그램 17</b> (77min) -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 카시스 - 하레 크리슈나 - 알브록에서 온 소식 - 여행 서사시 - 사중주 1번 - 아비뇽의 노래 - 연술로지 필름아카이브	<b>2</b> <b>14:00</b> ㉫ <b>프로그램 3</b> (180min) - 월튼 (일기, 노트, 스케치)  <b>18:30</b> ㉫ <b>프로그램 22</b> (99min) - 사막의 요나스	<b>3</b> <b>15:00</b> ㉫ <b>프로그램 7</b> (96min) - 천국은 아직 여기에
<b>6</b> <b>15:00</b> ㉫ <b>프로그램 11</b> (80min) -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  <b>19:00</b> ㉫ <b>프로그램 14</b> (87min) - 화산: 마키우나스 & 플릭서스	<b>7</b> <b>15:00</b> ㉫ <b>프로그램 19</b> (82min) - 할렐루야 더 힐즈	<b>8</b> <b>15:00</b> ㉫ <b>프로그램 16</b> (83min) -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 윌리엄스버그	<b>9</b> <b>14:00</b> ㉫ <b>프로그램 9</b> (128min) - 슈팅 건즈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 사이에서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b>18:00</b> ㉫ <b>프로그램 8</b> (150min) -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 사막에 서 있다	<b>10</b> <b>15:00</b> ㉫ <b>프로그램 6</b> (97min) - 사이에서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b>13</b> <b>15:00</b> ㉫ <b>프로그램 23</b> (99min) - 정글의 요나스  <b>18:30</b> ㉫ <b>프로그램 22</b> (99min) - 사막의 요나스	<b>14</b> <b>16:00</b> ㉫ <b>프로그램 21</b> (82min) - 요나스 - 언더그라운드 뉴욕	<b>15</b> <b>15:00</b> ㉫ <b>프로그램 13</b> (100min) -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 호세 루이스 게린	<b>16</b> <b>15:00</b> ㉫ <b>프로그램 18</b> (99min) -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 - 에릭 호킨스: - <지금 여기서 바라보다>에서 발췌 / 루치아 울루고세프스키 연주 -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 - 거리의 노래 - 서커스에 대한 기록 - 불안정한 세 개의 이미지 -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 - 오래된 동화	<b>17</b> <b>15:00</b> ㉫ <b>프로그램 16</b> (83min) -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 윌리엄스버그
			<b>19:00</b> ㉫ <b>프로그램 20</b> (82min) - 프리 래디컬스: 실형영화의 역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b>12.20</b> <b>15:00</b> ㉫ <b>프로그램 2</b> (78min) - 타임 앤 포춘 베티남 뉴스릴 - 영창의 촬영현장 기록 - 영창  <b>19:00</b> ㉫ <b>프로그램 4</b> (82min) -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	<b>21</b> <b>15:00</b> ㉫ <b>프로그램 5</b> (178min) -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b>16:00</b> ㉫ <b>프로그램 17</b> (77min) -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 카시스 - 하레 크리슈나 - 알브록에서 온 소식 - 여행 서사시 - 사중주 1번 - 아비뇽의 노래 - 연술로지 필름아카이브  <b>19:00</b> ㉫ <b>프로그램 1</b> (88min) - 슈팅 건즈 - 건조 오브 더 트리즈	<b>22</b> <b>15:00</b> ㉫ <b>프로그램 7</b> (96min) - 천국은 아직 여기에	<b>23</b> <b>14:00</b> ㉫ <b>프로그램 24</b> (71min) - 계절들  <b>16:00</b> ㉫ <b>프로그램 17</b> (77min) -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 카시스 - 하레 크리슈나 - 알브록에서 온 소식 - 여행 서사시 - 사중주 1번 - 아비뇽의 노래 - 연술로지 필름아카이브  <b>19:00</b> ㉫ <b>프로그램 1</b> (88min) - 슈팅 건즈 - 건조 오브 더 트리즈	<b>24</b> <b>14:00</b> ㉫ <b>프로그램 3</b> (180min) - 월튼 (일기, 노트, 스케치)
<b>27</b> <b>15:00</b> ㉫ <b>프로그램 13</b> (100min) -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 호세 루이스 게린  <b>18:30</b> ㉫ <b>프로그램 6</b> (97min) - 사이에서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b>28</b> <b>16:00</b> ㉫ <b>프로그램 12</b> (80min) - 마틴 스콜세지에 대하여 - 호세 루이스 게린  <b>16:00</b> ㉫ <b>프로그램 9</b> (128min) -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 - 제롬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 -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 - 천국의 이면	<b>29</b> <b>16:00</b> ㉫ <b>프로그램 21</b> (82min) - 요나스 - 언더그라운드 뉴욕  <b>*10분간 인터미션</b>	<b>30</b> <b>14:00</b> ㉫ <b>프로그램 10</b> (288min) -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의 성광을 보았다  <b>*10분간 인터미션</b>	<b>31</b> <b>15:00</b> ㉫ <b>프로그램 11</b> (80min) -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
<b>1.3</b> <b>15:00</b> ㉫ <b>프로그램 1</b> (88min) - 슈팅 건즈 - 건조 오브 더 트리즈  <b>18:30</b> ㉫ <b>프로그램 7</b> (96min) - 천국은 아직 여기에	<b>4</b> <b>15:00</b> ㉫ <b>프로그램 9</b> (128min) -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 - 제롬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 -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 - 천국의 이면	<b>5</b> <b>14:00</b> ㉫ <b>프로그램 8</b> (150min) -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 사막에 서 있다	<b>6</b> <b>14:00</b> ㉫ <b>프로그램 3</b> (180min) - 월튼 (일기, 노트, 스케치)  <b>18:30</b> ㉫ <b>프로그램 22</b> (99min) - 사막의 요나스	<b>7</b> <b>16:00</b> ㉫ <b>프로그램 14</b> (87min) - 화산: 마키우나스 & 플릭서스
<b>10</b> <b>14:00</b> ㉫ <b>프로그램 15</b> (114min) - 잠 못 드는 밤 이야기  <b>19:00</b> ㉫ <b>프로그램 12</b> (80min) - 마틴 스콜세지에 대하여	<b>11</b> <b>15:00</b> ㉫ <b>프로그램 18</b> (99min) -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 - 에릭 호킨스: - <지금 여기서 바라보다>에서 발췌 / 루치아 울루고세프스키 연주 -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 - 거리의 노래 - 서커스에 대한 기록 - 불안정한 세 개의 이미지 -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 - 오래된 동화	<b>12</b> <b>16:00</b> ㉫ <b>프로그램 19</b> (82min) - 할렐루야 더 힐즈	<b>13</b> <b>14:00</b> ㉫ <b>프로그램 24</b> (71min) - 계절들  <b>16:00</b> ㉫ <b>프로그램 20</b> (82min) - 프리 래디컬스: 실형영화의 역사  <b>19:00</b> ㉫ <b>프로그램 16</b> (83min) -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 윌리엄스버그	<b>14</b> <b>15:00</b> ㉫ <b>프로그램 23</b> (99min) - 정글의 요나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p><b>1.17</b></p> <p><b>16:00 </b>  <b>프로그램 2</b> (7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임 앤 포준 베트남 뉴스릴</li> <li>- 영장의 촬영현장 기록</li> <li>- 영장</li></ul> <p><b>19:00 </b>  <b>프로그램 17</b> (7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li> <li>- 카시스</li> <li>- 하레 크리슈나</li> <li>- 밀브룩에서 온 소식</li> <li>- 여행 서사시</li> <li>- 사중주 1번</li> <li>- 아비뇽의 노래</li> <li>-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li></ul>	<p><b>18</b></p> <p><b>16:00 </b>  <b>프로그램 4</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li></ul>	<p><b>19</b></p> <p><b>14:00 </b>  <b>프로그램 5</b> (17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li></ul>	<p><b>20</b></p> <p><b>15:00 </b>  <b>프로그램 6</b> (9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에서</li> <li>-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li></ul> <p><b>19:00 </b>  <b>프로그램 21</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나스</li> <li>- 언더그라운드 뉴욕</li></ul>	<p><b>21</b></p> <p><b>15:00 </b>  <b>프로그램 11</b>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li></ul>

<p><b>24</b></p> <p><b>14:00 </b>  <b>프로그램 3</b> (1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튼 (일기, 노트, 스케치)</li></ul> <p><b>19:00 </b>  <b>프로그램 1</b> (8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팅 갭즈</li> <li>- 건즈 오브 더 트리츠</li></ul>	<p><b>25</b></p> <p><b>15:00 </b>  <b>프로그램 13</b> (10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호세 루이스 게린</li></ul>	<p><b>26</b></p> <p><b>15:00 </b>  <b>프로그램 14</b> (8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 마키우나스 &amp; 플렉서스</li></ul>	<p><b>27</b></p> <p><b>15:00 </b>  <b>프로그램 15</b> (114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 못 드는 밤 이야기</li></ul> <p><b>18:30 </b>  <b>프로그램 18</b> (99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li> <li>- 에릭 호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지금 여기서 바라보다&gt;에서 발췌 / 루치아 톨루고세프스키 연주</li> <li>-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li> <li>- 킵/받침/두 무용수/라디오</li> <li>- 가리의 노래</li> <li>- 서커스에 대한 기록</li> <li>- 불안정한 세 개의 이미지</li> <li>-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li> <li>- 오래된 동화</li></ul></li></ul>	<p><b>28</b></p> <p><b>15:00 </b>  <b>프로그램 7</b> (96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국은 아직 여기에</li></ul>
---	--	--	--	---

<p><b>31</b></p> <p><b>15:00 </b>  <b>프로그램 9</b> (12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li> <li>- 제피로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li> <li>-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li> <li>- 천국의 이편</li></ul> <p><b>19:00 </b>  <b>프로그램 19</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렐루야 더 힐즈</li></ul>	<p><b>2.1</b></p> <p><b>16:00 </b>  <b>프로그램 20</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 래디컬스: 실험영화의 역사</li></ul>	<p><b>2</b></p> <p><b>14:00 </b>  <b>프로그램 3</b> (1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튼 (일기, 노트, 스케치)</li></ul>	<p><b>3</b></p> <p><b>14:00 </b>  <b>프로그램 5</b> (17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li></ul> <p><b>19:00 </b>  <b>프로그램 16</b> (83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li> <li>- 윌리엄스버그</li></ul>	<p><b>4</b></p> <p><b>15:00 </b>  <b>프로그램 8</b> (15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사막에 서 있다</li></ul>
---	--	---	--	---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p><b>2.7</b></p> <p><b>15:00 </b>  <b>프로그램 15</b> (114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 못 드는 밤 이야기</li></ul> <p><b>19:00 </b>  <b>프로그램 21</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나스</li> <li>- 언더그라운드 뉴욕</li></ul>	<p><b>8</b></p> <p><b>16:00 </b>  <b>프로그램 12</b>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틴 스톨제지에 대하여</li></ul>	<p><b>9</b></p> <p><b>15:00 </b>  <b>프로그램 14</b> (8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산: 마키우나스 &amp; 플렉서스</li></ul>	<p><b>10</b></p> <p><b>14:00 </b>  <b>프로그램 10</b> (28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의 성광을 보았다</li></ul> <p>*10분간 인터미션</p>	<p><b>11</b></p> <p><b>15:00 </b>  <b>프로그램 17</b> (7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li> <li>- 카시스</li> <li>- 하레 크리슈나</li> <li>- 밀브룩에서 온 소식</li> <li>- 여행 서사시</li> <li>- 사중주 1번</li> <li>- 아비뇽의 노래</li> <li>-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li></ul>

<p><b>14</b></p> <p><b>16:00 </b>  <b>프로그램 18</b> (99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li> <li>- 에릭 호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지금 여기서 바라보다&gt;에서 발췌 / 루치아 톨루고세프스키 연주</li> <li>-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li> <li>- 킵/받침/두 무용수/라디오</li> <li>- 가리의 노래</li> <li>- 서커스에 대한 기록</li> <li>- 불안정한 세 개의 이미지</li> <li>-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li> <li>- 오래된 동화</li></ul></li></ul> <p><b>19:00 </b>  <b>프로그램 11</b> (8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li></ul>	<p><b>15</b></p> <p><b>15:00 </b>  <b>프로그램 9</b> (12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li> <li>- 제피로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li> <li>-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li> <li>- 천국의 이편</li></ul>	<p><b>16</b></p> <p>*상영 없음</p>	<p><b>17</b></p> <p><b>14:00 </b>  <b>프로그램 24</b> (71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들</li></ul> <p><b>16:00 </b>  <b>프로그램 22</b> (99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막의 요나스</li></ul>	<p><b>18</b></p> <p><b>14:00 </b>  <b>프로그램 4</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li></ul> <p><b>16:00 </b>  <b>프로그램 19</b> (82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렐루야 더 힐즈</li></ul>
---	--	--------------------------------	--	--

<p><b>21</b></p> <p><b>15:00 </b>  <b>프로그램 6</b> (97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에서</li> <li>-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li></ul> <p><b>19:00 </b>  <b>프로그램 2</b> (7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임 앤 포준 베트남 뉴스릴</li> <li>- 영장의 촬영현장 기록</li> <li>- 영장</li></ul>	<p><b>22</b></p> <p><b>15:00 </b>  <b>프로그램 13</b> (10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호세 루이스 게린</li></ul>	<p><b>23</b></p> <p><b>15:00 </b>  <b>프로그램 23</b> (99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글의 요나스</li></ul>	<p><b>24</b></p> <p><b>14:00 </b>  <b>프로그램 10</b> (288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연히 나는 아름다운의 성광을 보았다</li></ul> <p>*10분간 인터미션</p>	<p><b>25</b></p> <p><b>14:00 </b>  <b>프로그램 8</b> (150m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사막에 서 있다</li></ul>
---	--	---	---	--

Screening Schedule  
2017. 11. 22 — 2018. 2. 25

Rating					Subtitles				
Ⓜ General					Ⓜ Korean				
Ⓜ Under 12 not admitted					Ⓜ English				
Ⓜ Under 15 not admitted									
Ⓜ Under 19 not admitted									
WED	THU	FRI	SAT	SUN					
<b>11.22</b>  <b>16:00</b> ⓂⓂ <b>Program 1</b> (88min) - Shooting Guns - Guns of the Trees  <b>18:30</b> <b>Program 23</b> (99min) - Jonas in the Jungle	<b>23</b>  <b>16:00</b> ⓂⓂⓂ <b>Program 2</b> (78min) - Time and Fortune Vietnam - Newsreel - Shooting the Brig - The Brig	<b>24</b>  <b>15:00</b> ⓂⓂⓂ <b>Program 20</b> (82min)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b>Artist Talk: Pip Chodorov</b>	<b>25</b>  <b>14:00</b> ⓂⓂⓂ <b>Program 10</b> (288min) - As I Was Moving Ahead -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with 10-minute intermission	<b>26</b>  <b>14:00</b> ⓂⓂⓂ <b>Program 24</b> (71min) - The Seasons  <b>16:00</b> ⓂⓂⓂ <b>Program 4</b> (82min)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b>29</b>  <b>15:00</b> ⓂⓂⓂ <b>Program 12</b> (80min) - Notes on an American Film -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b>17:30</b> ⓂⓂⓂ <b>Program 5</b> (178min) - Lost Lost Lost	<b>30</b>  <b>15:00</b> ⓂⓂⓂ <b>Program 15</b> (114min) - Sleepless Nights Stories	<b>12.1</b>  <b>16:00</b> ⓂⓂⓂ <b>Program 17</b> (77min)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Cassis - Hare Krishna - Report from Millbrook - Travel Songs - Quartet Number One - Song of Avignon - Anthology Film Archives	<b>2</b>  <b>14:00</b> ⓂⓂⓂ <b>Program 3</b> (180min)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b>18:30</b> ⓂⓂⓂ <b>Program 22</b> (99min) - Jonas in the Desert	<b>3</b>  <b>15:00</b> ⓂⓂⓂ <b>Program 7</b> (96min) - Paradise Not Yet Lost					
<b>6</b>  <b>15:00</b> ⓂⓂⓂ <b>Program 11</b> (80min) - A Letter from Greenpoint  <b>19:00</b> ⓂⓂⓂ <b>Program 14</b> (87min) - Re: Maciunas & Fluxus	<b>7</b>  <b>15:00</b> ⓂⓂⓂ <b>Program 19</b> (82min) - Hallelujah the Hills	<b>8</b>  <b>15:00</b> ⓂⓂⓂ <b>Program 16</b> (83min)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Williamsburg	<b>9</b>  <b>14:00</b> ⓂⓂⓂ <b>Program 9</b> (128min)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 Happy Birthday to John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b>18:00</b> ⓂⓂⓂ <b>Program 8</b> (150min)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b>10</b>  <b>15:00</b> ⓂⓂⓂ <b>Program 6</b> (97min) - In Between - Notes for Jerome					
<b>13</b>  <b>15:00</b> ⓂⓂⓂ <b>Program 23</b> (99min) - Jonas in the Jungle  <b>18:30</b> ⓂⓂⓂ <b>Program 22</b> (99min) - Jonas in the Desert	<b>14</b>  <b>16:00</b> ⓂⓂⓂ <b>Program 21</b> (82min) - Jonas - Underground New York	<b>15</b>  <b>15:00</b> ⓂⓂⓂ <b>Program 13</b> (100min) - Correspondence: Jonas Mekas—José Luis Guérin	<b>16</b>  <b>15:00</b> ⓂⓂⓂ <b>Program 18</b> (99min) - Film Magazine of the Arts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Lucia Dlugoszewski Performs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 Cup/Saucer/Two Dancers/Radio - Street Songs - Notes on the Circus - Imperfect 3-Image Films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b>19:00</b> ⓂⓂⓂ <b>Program 20</b> (82min)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b>17</b>  <b>15:00</b> ⓂⓂⓂ <b>Program 16</b> (83min)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Williamsburg					

WED	THU	FRI	SAT	SUN
<b>12.20</b>  <b>15:00</b> ⓂⓂⓂ <b>Program 2</b> (78min) - Time and Fortune Vietnam - Newsreel - Shooting the Brig - The Brig  <b>19:00</b> ⓂⓂⓂ <b>Program 4</b> (82min)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b>21</b>  <b>15:00</b> ⓂⓂⓂ <b>Program 5</b> (178min) - Lost Lost Lost	<b>22</b>  <b>15:00</b> ⓂⓂⓂ <b>Program 7</b> (96min) - Paradise Not Yet Lost	<b>23</b>  <b>14:00</b> ⓂⓂⓂ <b>Program 24</b> (71min) - The Seasons  <b>16:00</b> ⓂⓂⓂ <b>Program 17</b> (77min)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Cassis - Hare Krishna - Report from Millbrook - Travel Songs - Quartet Number One - Song of Avignon - Anthology Film Archives  <b>19:00</b> ⓂⓂⓂ <b>Program 1</b> (88min) - Shooting Guns - Guns of the Trees	<b>24</b>  <b>14:00</b> ⓂⓂⓂ <b>Program 3</b> (180min)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b>27</b>  <b>15:00</b> ⓂⓂⓂ <b>Program 13</b> (100min) - Correspondence: Jonas Mekas—José Luis Guérin  <b>18:30</b> ⓂⓂⓂ <b>Program 6</b> (97min) - In Between - Notes for Jerome	<b>28</b>  <b>16:00</b> ⓂⓂⓂ <b>Program 12</b> (80min) - Notes on an American Film -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b>29</b>  <b>16:00</b> ⓂⓂⓂ <b>Program 21</b> (82min) - Jonas - Underground New York	<b>30</b>  <b>14:00</b> ⓂⓂⓂ <b>Program 10</b> (288min) - As I Was Moving Ahead -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with 10-minute intermission	<b>31</b>  <b>15:00</b> ⓂⓂⓂ <b>Program 11</b> (80min) - A Letter from Greenpoint
<b>1.3</b>  <b>15:00</b> ⓂⓂⓂ <b>Program 1</b> (88min) - Shooting Guns - Guns of the Trees  <b>18:30</b> ⓂⓂⓂ <b>Program 7</b> (96min) - Paradise Not Yet Lost	<b>4</b>  <b>15:00</b> ⓂⓂⓂ <b>Program 9</b> (128min)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 Happy Birthday to John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b>5</b>  <b>14:00</b> ⓂⓂⓂ <b>Program 8</b> (150min)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b>6</b>  <b>14:00</b> ⓂⓂⓂ <b>Program 3</b> (180min)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b>18:30</b> ⓂⓂⓂ <b>Program 22</b> (99min) - Jonas in the Desert	<b>7</b>  <b>16:00</b> ⓂⓂⓂ <b>Program 14</b> (87min) - Re: Maciunas & Fluxus
<b>10</b>  <b>14:00</b> ⓂⓂⓂ <b>Program 15</b> (114min) - Sleepless Nights Stories  <b>19:00</b> ⓂⓂⓂ <b>Program 12</b> (80min) - Notes on an American Film -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b>11</b>  <b>16:00</b> ⓂⓂⓂ <b>Program 18</b> (99min) - Film Magazine of the Arts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Lucia Dlugoszewski Performs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 Cup/Saucer/Two Dancers/Radio - Street Songs - Notes on the Circus - Imperfect 3-Image Films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b>12</b>  <b>16:00</b> ⓂⓂⓂ <b>Program 19</b> (82min) - Hallelujah the Hills	<b>13</b>  <b>14:00</b> ⓂⓂⓂ <b>Program 24</b> (71min) - The Seasons  <b>16:00</b> ⓂⓂⓂ <b>Program 20</b> (82min)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b>19:00</b> ⓂⓂⓂ <b>Program 16</b> (83min)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Williamsburg	<b>14</b>  <b>15:00</b> ⓂⓂⓂ <b>Program 23</b> (99min) - Jonas in the Jungle

WED	THU	FRI	SAT	SUN
<b><u>1.17</u></b> <b>16:00</b> <b>Program 2</b> (78min) - Time and Fortune Vietnam Newsreel - Shooting the Brig - The Brig  <b>19:00</b> <b>Program 17</b> (77min)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Cassis - Hare Krishna - Report from Millbrook - Travel Songs - Quartet Number One - Song of Avignon - Anthology Film Archives	<b><u>18</u></b> <b>16:00</b> <b>Program 4</b> (82min)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b>19:00</b> <b>Program 17</b> (77min)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Cassis - Hare Krishna - Report from Millbrook - Travel Songs - Quartet Number One - Song of Avignon - Anthology Film Archives	<b><u>19</u></b> <b>14:00</b> <b>Program 5</b> (178min) - Lost Lost Lost   <b>19:00</b> <b>Program 21</b> (82min) - Jonas - Underground New York	<b><u>20</u></b> <b>15:00</b> <b>Program 6</b> (97min) - In Between - Notes for Jerome  <b>19:00</b> <b>Program 21</b> (82min) - Jonas - Underground New York	<b><u>21</u></b> <b>15:00</b> <b>Program 11</b> (80min) - A Letter from Greenpoint

<b><u>24</u></b> <b>14:00</b> <b>Program 3</b> (180min)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b>19:00</b> <b>Program 1</b> (88min) - Shooting Guns - Guns of the Trees	<b><u>25</u></b> <b>15:00</b> <b>Program 13</b> (100min) - Correspondence: Jonas Mekas—José Luis Guerín	<b><u>26</u></b> <b>15:00</b> <b>Program 14</b> (87min) - Re: Maciunas & Fluxus	<b><u>27</u></b> <b>15:00</b> <b>Program 15</b> (114min) - Sleepless Nights Stories  <b>18:30</b> <b>Program 18</b> (99min) - Film Magazine of the Arts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 Lucia Dlugoszewski Performs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 Cup/Saucer/Two Dancers/Radio - Street Songs - Notes on the Circus - Imperfect 3-Image Films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b><u>28</u></b> <b>15:00</b> <b>Program 7</b> (96min) - Paradise Not Yet Lost
--	---	---	--	--

<b><u>31</u></b> <b>15:00</b> <b>Program 9</b> (128min)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 Happy Birthday to John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b>19:00</b> <b>Program 19</b> (82min) - Hallelujah the Hills	<b><u>2.1</u></b> <b>16:00</b> <b>Program 20</b> (82min)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b><u>2</u></b> <b>14:00</b> <b>Program 3</b> (180min)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b><u>3</u></b> <b>14:00</b> <b>Program 5</b> (178min) - Lost Lost Lost  <b>19:00</b> <b>Program 16</b> (83min)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Williamsburg	<b><u>4</u></b> <b>15:00</b> <b>Program 8</b> (150min)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	--	--	---	---

WED	THU	FRI	SAT	SUN
<b><u>2.7</u></b> <b>15:00</b> <b>Program 15</b> (114min) - Sleepless Nights Stories  <b>19:00</b> <b>Program 21</b> (82min) - Jonas - Underground New York	<b><u>8</u></b> <b>16:00</b> <b>Program 12</b> (80min) - Notes on an American Film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b><u>9</u></b> <b>15:00</b> <b>Program 14</b> (87min) - Re: Maciunas & Fluxus	<b><u>10</u></b> <b>14:00</b> <b>Program 10</b> (288min) -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with 10-minute intermission	<b><u>11</u></b> <b>15:00</b> <b>Program 17</b> (77min)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Cassis - Hare Krishna - Report from Millbrook - Travel Songs - Quartet Number One - Song of Avignon - Anthology Film Archives

<b><u>14</u></b> <b>16:00</b> <b>Program 18</b> (99min) - Film Magazine of the Arts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 Lucia Dlugoszewski Performs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 Cup/Saucer/Two Dancers/Radio - Street Songs - Notes on the Circus - Imperfect 3-Image Films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b>19:00</b> <b>Program 11</b> (80min) - A Letter from Greenpoint	<b><u>15</u></b> <b>15:00</b> <b>Program 9</b> (128min)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 Happy Birthday to John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Not scheduled	<b><u>17</u></b> <b>14:00</b> <b>Program 24</b> (71min) - The Seasons  <b>16:00</b> <b>Program 22</b> (99min) - Jonas in the Desert	<b><u>18</u></b> <b>14:00</b> <b>Program 4</b> (82min)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b>16:00</b> <b>Program 19</b> (82min) - Hallelujah the Hills
---	---	----------------	--	--

<b><u>21</u></b> <b>15:00</b> <b>Program 6</b> (97min) - In Between - Notes for Jerome  <b>19:00</b> <b>Program 2</b> (78min) - Time and Fortune Vietnam Newsreel - Shooting the Brig - The Brig	<b><u>22</u></b> <b>15:00</b> <b>Program 13</b> (100min) - Correspondence: Jonas Mekas—José Luis Guerín	<b><u>23</u></b> <b>15:00</b> <b>Program 23</b> (99min) - Jonas in the Jungle	<b><u>24</u></b> <b>14:00</b> <b>Program 10</b> (288min) -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with 10-minute intermission	<b><u>25</u></b> <b>14:00</b> <b>Program 8</b> (150min)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	---	---	--	--







국립현대미술관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세와 수많은 진실들이 은폐된 역사의 굴곡 안에서 파괴되지 않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심연에 자리한 순수한 아름다움을 광학적 이미지의 시로서 노래한 위대한 아티스트 요나스 메카스의 방대한 영화작업 중 주요작품 37편과 연계 작품 10편을 선별해 상영한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시인인 요나스 메카스의 삶은 언제나 카메라와 함께 호흡했고 그가 매일 촬영한 이미지들은 한 개인의 문화인류학적 보고서처럼 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젊은 영혼을 가진 95살의 노장 요나스 메카스는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이미지의 본질을 필름카메라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해 탐구하였다. 계절이 변화하는 거리의 풍경,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움직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름 해변의 풍광들처럼 그의 영화들은 잡을 수 없는 덧없는 존재의 순간들, 한 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거나 회상이미지로 다시 돌아오는 일별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자동기술 도구처럼 연마된 그의 카메라로 숨쉬듯 촬영된 특유의 ‘필름 다이어리’ 속 이미지들은 미세한 삶의 순간들 속에 내재한 거대한 생명의 운동성을 느끼게 한다.

요나스 메카스가 DV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산란하는 빛의 진동과 같은 이미지와 움직임의 기법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그의 소박한 삶을 기록한 비디오 다이어리는 이미지가 곧 각개의 개인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회고전에선 디지털 상영과 16mm 필름 상영이 교차된다. 16mm 필름으로만 남아 있거나 또는 디지털로 변환된 영화들과 DV 카메라로 촬영된 영화들 모두 요나스 메카스의 삶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적인 일기 속에 깃든 시적 이미지의 운율을 전달할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의 영화와 함께, 이야기를 상상하고 생산하는 이미지의 세계가 아닌,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한 순간 기억처럼 혹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미지의 조용한 흐름에 잠겨보자.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하고 풍요로운 순간의 조각들이 그곳에 아직 살아있을 지도 모른다.

**김은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s proud to screen 37 major works from Jonas Mekas' vast catalog and ten related works. Jonas Mekas is a great artist whose poetic images sing of the pure beauty found deep inside those who are not lost in this complicated world and show us numerous truths hidden in the labyrinth of history. Jonas Mekas, who lives the life of a Lithuanian poet, lives with his camera. The images he shoots daily are kept in his archives, making up his own individual cultural anthropological survey. Jonas Mekas, a 95-year-old man with a youthful soul, explores the natur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world and human beings by means of film and video cameras. Jonas Mekas' films offer brief glimpses of fleeting beings that cannot be caught, moments that pass quickly like a glimmer or become recollections, such as landscapes changing seasons, sunlight shining through living room windows, and families at a beach in summer. His unique "film diary" images are filmed with a technique that has been polished and perfected until it is almost like automatic description. These images make us feel the vast movement of life that is inherent in its most minute moments.

Ever since Jonas Mekas started using DV cameras, he no longer uses image and motion techniques like scattering light oscillations. However, his video diaries, which record his simple life, prove that images can become a window that is shared by many different individuals in real time.

In this retrospective, digital and 16mm film screening collide. All of the 16mm films, HD from 16mm film and video works rhythmically deliver the poetic imagery that lies in the private diary that holds the moments of Jonas Mekas' life. In Mekas' films, let us immerse ourselves in the quiet flow of images that pass like a breeze or a momentary memory in our minds; let us not be concerned with imagining or producing a story. Perhaps the fragments of the pure, rich moments that we have lost may still be alive there.

**Kim Eunhee**

Curat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나는 산다 - 고로 나는 영화를 만든다.  
나는 영화를 만든다 - 고로 나는 산다.  
—요나스 메카스, <월든> 중

요나스 메카스의 영화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쓴 시와 일기에서 발전되었다. 1949년, 27세의 나이로 뉴욕에 막 도착한 리투아니아 시골 출신의 요나스 메카스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일당 1달러를 받으며 공장에서 일했지만 4년 동안 전후 독일과 난민 캠프에서 산 후라 예술과 문화에 몰입과 있었다. 그는 당시 가장 현대적인 예술이자 테크놀로지였던 영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언어 없는 새로운 시의 형태인 영상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첫 영화 프로젝트는 자신이 살던 이민자 커뮤니티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와 그의 동생 아돌파스는 전쟁과 미국으로의 망명을 함께 겪은 동료로, 새로운 세계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둘의 시나리오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는 난민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그들은 돈을 모아 빌려 쓰던 16mm 볼렉스 카메라를 결국엔 구입할 수 있었다.

그 후 15년 동안, 장편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내내 요나스 메카스는 혼자 촬영을 계속했다. 출판된 그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영상을 통해 사물의 디테일과 질감, 찰나의 시선, 사람들뿐 아니라 풍경과 나무, 날씨 등을 포착했다. 그의 영상 메모와 일기는 홈 무비처럼 일상을 기억하기 위한 사적 도구였다. 동시에 그는 이를 통해 “진짜” 영화를 찍기 위해 카메라 다루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동생과 함께 장편 내러티브 영화를 찍은 후 그는 그 영상 메모가 자신의 주된 작품 세계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스타일은 더 인상주의적으로, 삶의 흐름을 포착하는 점묘화풍에 가깝게 발전했다. 1960년대 중반에 그는 일기체 영화 만들기의 창시자로 인식되었다.<sup>1</sup>

영화는 싱글 프레임들이 모인 것이다.  
프레임들. 영화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있다.  
—요나스 메카스, <월든> 중

요나스 메카스는 1960년대에 독립영화 운동으로 매우 바쁜 삶을 살았다. 그는 동생과 함께 1954년 미국 최초의 정식 영화 잡지 『필름 컬처』를 만들었고 1958년부터는 『빌리지 보이즈』의 영화 평론가가 되어 주간 칼럼을 쓰게 되었다. 두 형제는 1961년 뉴 아메리칸 시네마 그룹을, 1962년에는 필름메이커스 배급센터와 필름메이커스 시네마테크를 설립했다. 요나스 메카스는 필름메이커스 시네마테크를 만들어 뉴욕 전역의 독립 극장에서 영화 프로그램을 큐레이팅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영화 제작에 전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영화를 찍었지만 그 스타일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그저 포착해내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어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는 뉴욕의 삶 속에서 찰나의 이미지와 에너지, 재빨리 지나가는 분주함을 잡아내기 위해 애니메이션처럼 한 프레임씩 찍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찍는 접근법의 결과물은 현실에서 벗어난 듯한 이미지, 속도감이 느껴지는 흐릿한 이미지였는데 대상의 충실한 시각적 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식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유사했다. 이는 요나스 메카스가 만들어 낸 영화 예술의 혁신이자 세상이 주는 흥분되는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는 관찰의 한 방식이다.

“나는 그저 보이는 것을 찬양할 뿐이다.”  
—요나스 메카스, <월든> 중

요나스 메카스의 영화는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리드미컬하지만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지는 않다. 삶은 계속된다. 친구, 우정, 외로움 등이 메카스가 만든 영화의 주된 소재다. 스토리텔링도, 과거나 미래도

없다. 카메라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밖에 포착할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홈 무비들은 그의 기억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집단적 기억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가 찍는 뉴욕의 예술 현장은 팝 컬처의 중심이 된다. 비트 시인, 플럭서스 운동, 리빙 시어터, 앤디 워홀의 팩토리, 존 레논과 오노 요코의 1968년 침대 시위... 그의 카메라는 이 모든 것을 담았다. 이야기는 삶이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진다.

영화 평론가이자 잡지 발행인, 그리고 영화 프로그래머로서 요나스 메카스는 예술계의 혁신적인 움직임에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독립 영화와 아방가르드 운동 내에서도 가장 참신하고 선구적인 영화와 영화인들을 칭송했다. 영화는 ‘세기의 눈’<sup>2</sup> 이었고 요나스는 자신을 새로운 예술 장르의 선두에 있는 ‘기록하는 눈’<sup>3</sup>으로 여겼다. 그는 영화의 탄생과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나란히 놓고 동생과 함께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를 본부 삼아 뉴 아메리칸 시네마를 이끄는 책임자를 자처했다. 그는 앤디 워홀이 자신들의 영화 상영회에 계속 참석해 거실 바닥에 앉아 영화를 보곤 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를 만났다.

요나스 메카스의 영화 일기에 망명 시인의 슬픔과 향수, 그가 겪은 전쟁의 고통이 깃들여 있긴 하지만 그는 결국 삶의 기쁨을 찬양하는 편을 택한다. 그는 행복과 우정, 술 마시고 춤추는 순간으로 카메라를 돌린다. 그는 1분, 10분, 10초, 심지어는 몇 프레임씩, 적은 분량을 매일 촬영한다. 시간이 가면서 몇 시간 분량의 영상이 모인다. 그는 촬영을 하루도 멈춘 적이 없다. 새 작품을 상영해 달라는 초청을 받으면 그는 촬영본을 첩터나 필름 릴, 촬영한 연도에 따라 편집한다. 그의 일기가 쌓여가면서 그는 자기 세대의 기록자가 되고 그의 영화에는 삶의 춤, 창작의 기쁨이 담긴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언뜻 본 적이 있다.”  
—율리우스 지즈(Julius Ziz),  
<그동안 나비는 날고> 중 요나스 메카스의 말

1949년 촬영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요나스 메카스는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1980년에 그는 비디오키메라 사용을 시도했다. 처음 볼렉스 카메라를 쓸 때처럼 사용법을 완벽히 익히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지만 그는 2000년대 이후에는 디지털 비디오로만 촬영했다. 비디오로 찍은 그의 영화 일기에는 필름으로 찍은 영화 일기와 같은 플리커 현상이 없다. 비디오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비디오 다이어리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DV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그의 이미지와 사운드 아카이브<sup>4</sup>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그는 계속해서 촬영본을 편집했다. 그중 많은 부분이 2007년 비디오로 매일의 기록을 시도했던 <365일 프로젝트>나 2011년 공개된 <잠 못 드는 밤 이야기>를 비롯한 4편의 장편 비디오 다이어리에 포함되었다.

필름에서든 비디오에서든 글에서든 요나스 메카스의 정신은 힘차게 노래한다. 그 노래는 창작과 보존의 노래이자 삶과 예술과 시에 대한 찬가다. 그리고 그가 언뜻 본 아름다움에서 포착해 낸 세기의 노래다.

**핍 초도로프**  
공동 큐레이터

<sup>1</sup> 요나스 메카스는 마리 멘켄을 필름 다이어리의 창시자로 여긴다. 그는 촬영을 시작할 당시에는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의 영화 <노트북>(1962)을 본 후 일기체 영화를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필름 다이어리를 만든 다른 감독들에는 앤드류 노렌, 샬탈 애커만, 로버트 후오트, 하워드 구텐플랜, 이보노 라이너, 에드 핀커스, 캐롤리 슈니먼 등이 있다.

<sup>2</sup>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세기의 눈』(*The Eye of the Century*, 2006)에서 인용. 영화는 20세기에 탄생해 우리에게 새로운 보는 방식, 새로운 주관성, 시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했다. 역으로 영화는 시대와 새로운 매체와 시각적 소통에 대한 요구에 의해 형성된다.

<sup>3</sup>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중

<sup>4</sup> 요나스 메카스는 아카이브시스템도 했다. 그는 1970년 뉴욕 맨해튼 필름 아카이브를 설립했고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 Jonas Mekas: Eye of the Century

**“I live—therefore I make films.  
I make films -- therefore I live.”**

– Jonas Mekas, soundtrack of *Walden*

Jonas Mekas’ cinema developed out of his poetry and diary writing since childhood. In 1949 as a rural Lithuanian immigrant just arrived in New York City, turning 27, not speaking the language, working in factories for one dollar per day, starved for art and culture after four years in post-war Germany and “displaced persons” camps, Jonas adopted the most modern art form and technology of the day: cinema. He would go on to create a new form of poetry without language, a visual poetry.

His first film project was to document the daily life of the immigrant community around him. He and his brother Adolfas, constant companion throughout the war and exile to America, had the ambition to write screenplays and make films in the new world. Their first screenplay “*Lost Lost Lost*” would express the loneliness of the refugee. Six months after their arrival they saved and borrowed and finally bought a 16mm Bolex movie camera.

For the next 15 years, while dreaming of making feature films and working odd jobs to survive, Jonas kept shooting rolls of film, just for himself. As in his published poetry, he captured details, glimpses, textures, people but also landscapes, trees, the weather. These notes and diaries were like home movies, his personal tool to remember daily life. At the same time, he felt he was practicing, learning to use the camera for his “real” film to come. However, over time, and after having made narrative feature films with his brother, he came to realize that these notes were to be his major oeuvre. His style developed into a more impressionist, pointillist capturing of life going by, and by the mid 1960s he was considered a founder of the diary style of filmmaking.<sup>1</sup>

**“Cinema is single frames.  
Frames. Cinema is between the  
frames.”**

– Jonas Mekas, soundtrack of *Walden*

Jonas became very busy during the 1960s as an activist for independent cinema. He and his brother had founded the first serious American film review, *Film Culture* magazine in 1954 and since 1958 he had become film critic for the *Village Voice*, writing a weekly column. They also started the New American Cinema group in 1961 and the Film-Makers’ Distribution Center in 1962, and the Film-Makers’ Cinematheque, where Jonas curated film programs at independent theatres around New York. He found that he had no time left to devote himself to his own filmmaking.

Although he never stopped shooting, his style started changing, and he became more interested in just capturing the reality around him. He carried the camera every day and he developed techniques to catch life speeding by, not to miss anything. He started shooting single frames, like animation, in order to capture glimpses, the energy, the darting busyness of his life in New York. The result of this approach to filming reality was an image far removed from reality, accelerated and blurry, just as the impressionist painters in capturing their true perception deviated from a faithful optical reproduction of what they saw. This was Jonas’ innovation in film art, a way of seeing that connects deeply with feeling the excitement of the world.

**“I am only celebrating what I see.”**

– Jonas Mekas, soundtrack of *Walden*

In Jonas’ cinema, although the visual activity is intense and percussive, nothing much happens. There is no plot. Life goes on. Friends and friendship as well as loneliness are the main subject. There is no storytelling, no past or future: the camera can only capture what is happening here and now. At the same time, these home movies become Jonas’ memory, and our collective memory as the New York art scene he is filming develops into the center of pop culture. He films it all: the Beat poets, the Fluxus movement, the Living Theatre, Andy Warhol’s factory, John and Yoko in their 1968 bed-in for peace... The

storytelling happens as life unfolds.

As film critic, magazine publisher and programmer, Jonas’ finger was on the pulse of innovation in the arts. He celebrated the most fresh and visionary films and filmmakers in the independent, avant-garde movement. Cinema was the “eye of the century”<sup>2</sup> and Jonas found himself as a “recording eye”<sup>3</sup> in the center and forefront of a new art form. He coined it the “New American Cinema” and placed himself and his brother at the helm of the group’s headquarters in their tiny Manhattan apartment, which soon became the epicenter of film culture. He met Andy Warhol after realizing he had been coming to their film screenings, sitting on the floor of their living room.

Although Jonas’ film diaries embody the sorrow and homesickness of the exiled poet, the suffering of war he experienced, he chooses to celebrate the joy of life. He turns his camera on those moments of happiness, friendship, drinking or dancing. He shoots a little every day: a minute, ten seconds, or just a few frames. As time passes, he collects hours of footage. He has never stopped filming. When invited to show a new work, he edits his material down into chapters, or reels, often years after shooting. His diary grows, he becomes the chronicler of his generation and his films embody the dance of life, the joy of creation.

**“I do not know where I am coming  
from or where I am going to but  
I have seen brief glimpses of beauty.”**

– Jonas Mekas in *Meanwhile a Butterfly Flies* by Julius Ziz

Just as in 1949, Jonas has never been afraid to try new technology. As early as 1980 he tried the video camera. It took him years to master this technology, as it had for the Bolex camera, however since 2000 Jonas has been filming exclusively in digital video. His video diaries do not have the pulsing flicker of his film diaries; they record time continuously, allowing him to develop a new style of video diary.

With the DV camera, his archive<sup>4</sup> of image and sound has grown exponentially, and he continues to edit this material. Much of it appeared in 2007 when he challenged himself to make a video every day (the *365 Day Project*), or in 2011 when he released four feature-length video diaries including *Sleepless Nights Stories*.

Whether in film or in video or through his writings, the spirit of Jonas Mekas sings out. It is a song of creation, of preservation, an ode to life, to art and to poetry. It is a song of the century told in brief glimpses of beauty.

**Pip Chodorov**  
Co-curator

<sup>1</sup> Jonas recognizes Marie Menken as the inventor of diary filmmaking. Though he had not known about her when he started shooting, it was seeing her film *Notebook* (1962) that gave him confidence to pursue this form. Other filmmakers who practiced film diary include Andrew Noren, Chantal Akerman, Robert Huot, Storm de Hirsch, Howard Guttenplan, Yvonne Rainer, Ed Pincus, Carolee Schneeman.

<sup>2</sup> From Francesco Casetti, *The Eye of the Century*, 2006. Cinema was born with the 20th century, giving us a new way to see, new subjectivities, new relationships to space and time, and in turn the cinema was shaped by the century and its demand for a new medium, visual communication.

<sup>3</sup> From the soundtrack of *Lost Lost Lost*.

<sup>4</sup> Jonas is also an archivist, the 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of Anthology Film Archives in New York since 1970.

## 작가 소개

요나스 메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22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언더그라운드 신문을 편집하고 히틀러 치하의 제3제국에서 옥살이를 했으며 그 후에는 난민 신문이 되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영화 보기에 대한 그의 열정이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고 영화 만들기로 확대된 것은 미국에서였다. 그는 계속 16mm 필름 다이어리를 만들었다. 1950년대 중반 메카스는 『빌리지 보이스』지와 잡지 『필름 컬처』에 주간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쓴 글은 모두 책으로 엮여 영어, 독일어, 리투아니아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일기 형식의 영화에서 빠른 호흡과 짧게 훑듯 보는 듯한 시각 이미지들은 의식과 기억의 흐름, 희망과 상실을 상기시킨다. 이런 시각적 스타일은 망명자의 사적인 목소리처럼 느껴진다. 그의 목소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새롭고 젊은 예술 형식을 발견해내는 이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메카스는 독자적인 스타일로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아방가르드 영화를 만드는 동료 예술가들이 더 주목받게 하려는 노력도 계속했다. 1970년 4월 피츠버그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월든: 다이어리, 노트, 스케치>을 보여주었다. 그와의 만남은 그의 영화를 볼 때와 아주 비슷한 소통의 경험이었다. 2년 후 그는 스탠 브래키지, 마리 멘켄, 제임스 브로턴, 제롬 힐, 로버트 브리어를 비롯한 많은 동시대 작가들의 영화에 대한 4시간 동안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왔다.

요나스 메카스는 스스로 자신의 영화와 관점을 관습적인 ‘영화’보다는 시, 스케치, 엽서에 가깝다고 보았다.

### 로버트 할러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 특별컬렉션  
영예디렉터

## Biography

Born (1922-) and raised in Lithuania in the interlude before World War II, Mekas was swept up by History — editing an underground newspaper, becoming a prisoner of the Third Reich, then a Displaced Person, then an immigrant to the United States where his love for film as a spectator expanded into showing films, and making them, chiefly an ongoing 16mm diary. In the mid 1950s he started writing a weekly column in the *Village Voice* newspaper, and cofounded *Film Culture* magazine. All those years of writing have since been collected and excerpted in books, in English, German, Lithuanian, Italian.....

His diaristic films, often with a rapid pace and a glancing vision, suggest consciousness and memory, evoking hope and loss. This visual style is personal and feels like the voice of an exile. His voice is also, more fundamentally, the voice of one discovering the nature of a new, young art form.

As much as his films are uniquely his own, Mekas has also worked to raise the visibility of his fellow artists in avant-garde filmmaking. The first time I met him was in April 1970 when he showed his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in Pittsburgh. To meet him in person was very much like watching his film—shared communications. Two years later he returned for a four hour seminar on the films of his contemporaries, Stan Brakhage, Marie Menken, James Broughton, Jerome Hill, Robert Breer, and many others.

Mekas himself compares his films, and his outlook more to poetry, to sketches and postcards, than to customary expectations of conventional “movies.”

### Robert A. Haller

Director Emeritus, Special Collections at  
Anthology Film Archives





## 슈팅 건즈

찰스 레빈 | 미국 | 1961 | 4min | 16mm on HD | B&amp;W | Silent

미완성된 영화에서 발췌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 이 작품은 요나스 메카스가 장편 <건즈 오브 더 트리즈>의 시퀀스를 연출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찰스 레빈 (b.1935)

찰스 레빈은 미국의 영화감독이다. 뉴욕대학교 그리고 한스 리히터가 영화과의 학과장이던 뉴욕시립대학교를 다녔다. 찰스 레빈은 1950년대 후반부터 영화를 제작했고, 1966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캐니언 영화조합'을 설립하는 데에 힘썼다.

## Shooting Guns

Charles Levine | USA | 1961 | 4min | 16mm on HD | B&amp;W | Silent

In documentary style, an excerpt from an unfinished movie. This film shows Jonas Mekas directing a sequence from his feature, *Guns of the Trees*.

## Charles Levine (b.1935)

Charles Levine is an American Filmmaker. He attended New York University and City College of New York, when Hans Richter was head of the film department. Charles Levine began to make films in the late 1950s, and moved to San Francisco in 1966 where he helped to found the Canyon Cinema Co-op.



## 건즈 오브 더 트리즈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2 | 84min | 35mm on HD | B&amp;W

요나스 메카스의 첫 장편 영화로 이탈리아의 포레타 테르메 프리시네마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그의 동생 아돌파스는 주연 배우이자 감독이었다. 장면을 사이에는 비트 시인 앨런 긴즈버그의 시가 들어갔다. 또 다른 주연 배우 벤 카루더스는 막 존 카사베츠의 첫 장편 영화 <그림자들>(1959)에 출연한 후였으며, 조지 마키우나스도 영화에 출연했다.

네 명의 젊은이들이 친구였던 한 젊은 여성이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엮는 단절된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제목은 1960년 즈음 젊은이들이 주변의 모든 것과 불화한 나머지 공원과 거리에 있는 나무들조차 자신의 존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스튜어트 퍼코프의 시에서 따왔다.  
—요나스 메카스

## Guns of the Trees

Jonas Mekas | USA | 1962 | 84min | 35mm on HD | B&amp;W

Jonas Mekas' first feature film won the grand prize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Free Cinema at Porretta Terme, Italy. His brother Adolfas was main actor and assistant director. The Beat generation poet Allen Ginsberg contributed written and spoken interludes. Ben Carruthers, another main actor, had just starred in John Cassavetes' first feature *Shadows*. George Maciunas also makes an appearance.

Four young people are trying to understand why their friend, a young woman, committed suicide. A film made up of disconnected scenes weaving between past and present. The title of the film comes from a poem by Stuart Perkoff which tells that some young people felt (around 1960) that everything is against them, so much that even the trees in the parks and streets seemed to them like guns pointing at their very existence.  
—Jonas Mekas



## 타임 앤 포춘 베트남 뉴스릴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8 | 4min | 16mm on HD | Color

라플란드 국방부 장관과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일종의 패러디 인터뷰가 진행된다.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들이 오가는데, 그 중 하나는 전쟁 지휘권을 마피아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아돌파스 메카스가 장관 역할을 맡았다.  
—요나스 메카스

## 영창의 촬영현장 기록

스톰 데 히르쉬 | 미국 | 1964 | 6min | 16mm on HD | B&amp;W | Silent

리빙 시어터 프로덕션의 무대에서 <영창>의 영화 버전을 촬영 중인 요나스 메카스의 모습을 기록한 뉴스릴.  
—스톰 데 히르쉬



타임 앤 포춘 베트남 뉴스릴 Time and Fortune Vietnam Newsreel

## Time and Fortune Vietnam Newsreel

Jonas Mekas | USA | 1968 | 4min | 16mm on HD | Color

A spoof interview with War Minister of Lapland concerning war in Vietnam. A few practical suggestions are given, among them a suggestion to turn the conduction of war over to the mafia. The Minister is played by Adolfas Mekas.  
—Jonas Mekas

## Shooting the Brig

Storm de Hirsch | USA | 1964 | 6min | 16mm on HD | B&amp;W | Silent

A newsreel of Jonas Mekas shooting his filmed version of *The Brig* on the set of the Living Theatre production.  
—Storm de Hirsch



영창의 촬영기록 현장 Shooting the Brig

## 영창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4 | 68min | 16mm on HD | B&amp;W

이 작품은 연극을 각색한 영화가 아니라 촬영된 연극이다. 영화는 공연이 한 차례 진행되는 동안 촬영되었다. 무대에 발을 딛기 전까지 나는 그 연극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카메라와 사운드 장비를 들고 있었다. 16mm 필름에 바로 동시녹음이 가능한 오리콘 카메라 세 대와 10분 길이의 필름매거진\*을 장착하고 있었다. 진행하면서 카메라를 계속 교체했기 때문에 공연은 10분에 한번씩 중단되었고, 시작할 때마다 몇 초씩 동작이 겹쳤다. 각 10분씩 12번의 테이크로 연극을 촬영했다. 생각하거나 반추해볼 시간은 없었다. 다시 촬영하거나 실수할 시간도 없었다. 내 동작이나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

연극 <영창>은 이런 실험에 적합한 작품이었다. 연극의 마지막 밤 공연은 삶 그 자체의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자동화된 것처럼 진행되었다.  
—요나스 메카스

\*카메라 위쪽에 위치하며 촬영 전의 생필품이 담긴 공급 스펀과 촬영이 끝난 필름을 감는 스펀을 내장하는 완전히 차광된 밀실로 되어 있다.

## 스톰 데 히르쉬 (1912-2000)

스톰 데 히르쉬는 미국의 시인이자 감독이다. 1960년대 뉴욕 아방가르드 영화계의 주요 인물이었으며 ‘필름메이커 조합’의 창립 멤버이다. 1965년까지 적어도 두 권 이상의 시집을 출판했다. 또한 데 히르쉬는 바드 칼리지와 스크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가르쳤다.

## Storm de Hirsch (1912-2000)

Storm de Hirsch was an American poet and filmmaker. She was a key figure in the New York avant-garde film scene of the 1960s, and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Film-Makers' Cooperative. As a poet she published at least two collections by 1965. In addition, de Hirsch taught at Bard College and the School of Visual Arts.

## The Brig

Jonas Mekas | USA | 1964 | 68min | 16mm on HD | B&amp;W

*The Brig* is not an adaptation of a play; it is a filmed play. The film was made in one evening, during one performance. I had never seen the play before I stepped on the stage. I had the camera and sound on me. I had three 16mm single-system (shooting sound directly on film) Auricon cameras with ten-minute magazines. I kept changing cameras as I went along. The performance was stopped every ten minutes to change cameras, with a few second overlap of action at each start. I shot the play in ten-minute takes, twelve takes in all. There was no time for thinking or reflecting; there was no time for reshooting, no time for mistakes: I had to make instantaneous decisions about my movements and the camera movements. [...]

“*The Brig*,” the play, was perfect material for such an experiment: the performance that closing night was so automatized, so perfectly acted that it had the inevitability of life itself. So I threw myself into it, and I used it as raw material, as it happened, as if it were a real event – which, in truth, it was.  
—Jonas Mekas





## 월든 (일기, 노트, 스케치)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8-69 | 180min | 16mm/HD | B&amp;W/Color

1950년 이래 나는 계속 필름 다이어리를 써왔다. 볼렉스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상황들, 친구들, 뉴욕, 계절과 같은 당장 일어나는 일에 반응했다. 어떤 날은 10프레임을 찍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0초, 혹은 10분씩 찍을 때도 있었다. 아무것도 찍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일기를 쓴다는 건 회고적인 과정이다. 일기를 쓸 때, 당신은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고 모두 적어내려 간다. 한편 필름 (카메라) 다이어리를 쓴다는 것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반응하는 것이다.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촬영하는 것은 사건이나 감상을 재연하는 것이다.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당장 포착하려면 도구(이 경우에는 볼렉스 카메라)에 완벽히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반응하는 현실뿐만 아니라 나의 심정(그리고 기억)까지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는 또한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 안에서 구조를 짜는 일(편집)까지 바로 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월든>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푸티지는 카메라에서 나온 그대로이다. 형식과 내용을 해치지 않고 이러한 장면들을 편집실에서 끌어낼 수는 없다. <월든>은 1964-68년에 찍은 것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인 것이다. 사운드트랙으로는 같은 시기에 수집한 목소리, 지하철과 거리의 소음, 소풍(나는 낭만주의자니까), 그리고 중요하거나 별로 중요치 않은 소리들을 사용했다.

—요나스 메카스

\*16mm와 HD로 각각 2회씩 상영  
2 screenings 16mm & 2 in HD



## Walden (Diaries, Notes, and Sketches)

Jonas Mekas | USA | 1968-69 | 180min | 16mm/HD | B&amp;W/Color

Since 1950 I have been keeping a film diary. I have been walking around with my Bolex and reacting to the immediate reality: situations, friends, New York, seasons of the year. On some days I shot ten frames, on others ten seconds, still on others ten minutes. Or I shot nothing. When one writes diaries, it's a retrospective process: you sit down, you look back at your day, and you write it all down. To keep a film (camera) diary, is to react (with your camera) immediately, now, this instant: either you get it now, or you don't get it at all. To go back and shoot it later, it would mean restaging, be it events or feelings. To get it now, as it happens, demands the total mastery of one's tools (in this case, Bolex): it has to register the reality to which I react and also it has to register my state of feeling (and all the memories) as I react. Which also means, that I had to do all the structuring (editing) right there, during the shooting, in the camera. All footage that you'll see in *Walden* is exactly as it came out from the camera: there was no way of achieving it in the editing room without destroying its form and content. *Walden* contains material from the years 1964-68, strung together in chronological order. For the soundtrack I used some of the sounds that I collected during the same period: voices, subways, much street noise, bits of Chopin (I am a romantic), and other significant and insignificant sounds.

—Jonas Mekas

## 리투아니아 여행의 추억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72 | 82min | 16mm/HD | B&amp;W/Color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미국 생활의 초창기인 1950-1953년에 내가 첫 볼렉스 카메라로 찍은 푸티지로 이루어져 있다. 브루클린의 이민자들이 소풍을 가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나 윌리엄스버그 거리 푸티지들은 나와 내 동생 아돌파스의 그 시절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은 1971년 8월 리투아니아에서 촬영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푸티지는 내가 태어난 마을인 세메니스키아이를 담고 있다. 낡은 집이 보이고, 1886년생이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장난치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 오늘날의 리투아니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저 25년 만에 집에 돌아온 한 망명자의 기억을 통해서만 그곳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전쟁 동안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1년 있었던 함부르크의 교외 지역인 엘름스호른에 광호가 쳐진 채 시작된다. 광호가 닫히면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피터 쿠벨카, 헤르만 니치, 아네트 미켈슨, 켄 제이콥스를 만난 비엔나로 넘어간다. 영화는 1971년 8월, 비엔나 청과시장이 불에 타면서 마무리된다.

—요나스 메카스

\*16mm와 HD로 각각 2회씩 상영  
2 screenings 16mm & 2 in HD



## Reminiscences of a Journey to Lithuania

Jonas Mekas | USA | 1972 | 82min | 16mm/HD | B&amp;W/Color

The film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made up of footage I shot with my first Bolex, during my first years in America, mostly from 1950-1953. It shows me and my brother Adolfas, how we looked in those days; miscellaneous footage of immigrants in Brooklyn, picnicking, dancing, singing; the streets of Williamsburg. The second part was shot in August 1971, in Lithuania. Almost all of the footage comes from Semeniskiai, the village I was born in. You see the old house, my mother (born 1887), all the brothers, goofing, celebrating our homecoming. You don't really see how Lithuania is today: you see it only through the memories of a Displaced Person back home for the first time in twenty-five years. The third part begins with a parenthesis in Elmshorn, a suburb of Hamburg, where we spent a year in a forced labor camp during the war. After the parenthesis closes, we are in Vienna where I see some of my best friends - Peter Kubelka, Hermann Nitsch, Annette Michelson, Ken Jacobs. The film ends with the burning of the Vienna fruit market, August, 1971.

—Jonas Mekas

##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76 | 178min | 16mm on HD | B&amp;W/Color

6개의 릴로 구성된 이 필름 다이어리는 1949년부터 1963년까지를 다루고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촬영하여 1976년에 편집한 것이다. 일기는 1949년 10월, 뉴욕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1, 2번째 릴은 브루클린의 젊은 시인이자 망명자로서의 내 삶을 다룬다. 3, 4번째 릴에는 오차드 스트리트와 이스트 13번가에서의 삶이 등장한다. 이때 뉴욕의 시인과 영화인 커뮤니티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또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의 정치적 시위를 기록한다. 5번째 릴은 버몬트에서 찍은 하이쿠 시리즈인 <래빗 싯 하이쿠>, <할렐루야 더 힐즈> 촬영 현장, 그리고 뉴욕시의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릴에는 플래허티 세미나, 스톤 브룩의 해변, 그리고 시골로의 여행이 담겨있다. 이 여섯 개의 릴에서 다룬 시간은 내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고자 절박한 시도를 했던 때였다. 고통스러운 영상을 통해 나는 망명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려 했다. 이 릴들에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1949년에 내가 동생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영화의 제목이 그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당시 우리의 기분이 그랬기 때문이다. 이 제목은 고향을 잊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고향을 얻은 것도 아닌 망명자의 상태를 묘사한다. 마지막 릴에서 우리는 조금씩 긴장을 풀면서 행복한 순간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전환기를 맞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 그다음 일기를 펼쳐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 Lost Lost Lost

Jonas Mekas | USA | 1976 | 178min | 16mm on HD | B&amp;W/Color

These six reels of my film diaries come from the years 1949-1963, filmed in 1949-1963, edited 1976. They begin with my arrival in New York in October 1949. The first and second reels deal with my life as a Young Poet and a Displaced Person in Brooklyn. Reel three and reel four deal with my life in Manhattan on Orchard Street and East 13th St. First contacts with New York poetry and filmmaking communities. Documentation of the political protests of the late fifties and early sixties. Reel five includes *Rabbit Shit Haikus*, a series of Haikus filmed in Vermont; filming *Hallelujah the Hills*; scenes of New York City. Reel six contains a trip to Flaherty Seminar, a visit to the seashore in Stony Brook; excursions to the countryside. The period I am dealing with in these six reels was a period of desperation, of attempts to grow roots into the new ground, to create new memories. In these six painful reels I tried to indicate what it feels to be in exile, how I felt in those years. These reels carry the title “*Lost Lost Lost*”, the title of a film myself and my brother wanted to make in 1949, and it indicates the mood we were in, in those years. It describes the mood of a Displaced Person who hasn't yet forgotten the native country but hasn't gained a new one. The sixth reel is a transitional reel where we begin to see some relaxation, where I begin to find moments of happiness. New life begins. What happens later, you have to see the next installment of my diaries ...

—Jonas Mekas



## 사이에서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78 | 52min | 16mm | B&amp;W/Color

이 작품은 <월든>에서 제외된 푸티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것들은 <로스트 로스트 로스트>와 <월든>의 사이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주로 뉴욕에서 촬영되었고 일부는 여행 중에 촬영한 것이다. 그 도시에서 리차드 포먼, 에이미 토빈, 멜 리만, 피터 비어드, 데이비드 와이즈, 앤드루 메이어, 살바도르 달리, 제롬 힐, 데이비드 스톤과 바바라 스톤, <두 탐정 이야기>를 촬영하던 내 동생 아돌파스, 다이앤 디 프리마, 앨런 긴즈버그, 노먼 메일러, 에드 샌더스, 고든 볼, 헨리 롬니, 잭 스미스, 셸리 클라크, 루이스 브라이간트, 제인 홀저 등의 친구들을 만났다. 이 작품은 특정 시대를 반영하며 동일한 시기에 녹음된 소리가 삽입되었다. 라디오 음악, 음반의 일부분, 내 목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다. 멜 리만이 23가의 지붕에서 밴조를 연주하는 소리는 실제로 지붕 위에서 마이크에 바람이 불어들던 상태에서 녹음된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 In Between

Jonas Mekas | USA | 1978 | 52min | 16mm | B&amp;W/Color

The material for this film is footage that didn't find a place in the *Walden* reels. Some of it begins in between *Lost Lost Lost* and *Walden*. It's mostly New York, and some travel footage. The City friends: Richard Foreman, Amy Taubin, Mel Lyman, Peter Beard, David Wise, Andrew Meyer, Salvador Dalí, Jerome Hill, David Stone and Barbara Stone, my brother Adolfas filming *Double Barreled Detective Story*, Diane di Prima, Allen Ginsberg, Norman Mailer, Ed Sanders, Gordon Ball, Henry Romney, Jack Smith, Shirley Clarke, Louis Brigante, Jane Holzer, etc. etc. It's a period piece. The sounds were recorded about the same time. Bits of radio music, bits of records, my own voice, and voices of my friends. Mel Lyman playing banjo on the roof of 23rd Street was actually recorded on the roof, with the wind blowing into the mike.

—Jonas Mekas





## 제롬에게 보내는 편지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78 | 45min | 16mm on HD | Color

1966년 여름, 나는 제롬 힐의 손님으로 카시스에 두 달 간 머물렀다. 1967년에는 아담스 시트니와 함께 잠깐 다시 그곳을 방문했다. 이 영화의 푸티지는 그 두 차례의 여행에서 촬영한 것이다. 제롬이 죽고 난 후 1974년에 카시스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때 촬영한 푸티지가 작품의 에필로그를 이룬다.

테일러 미드, 베르나데트 라퐁, 찰스 라이델, 바바라 스톤과 데이비드 스톤 및 그들의 자녀들, 노엘 버치 주디스 말리나, 줄리안 벅, 리빙 시어터 콜렉티브, 살리아핀 부인, 장 자크 르벨, 미셸 폰텐, 알렉 와일더, 아담스 시트니와 줄리 시트니, 제롬의 아마 가장 가깝고 오래된 친구, 이름조차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늘 제롬이 로즈버드라고 불렀던 사람을 포함한 제롬의 친구들 모두가 이 영화에 등장한다.

그 여름들은 내게 행복하지만 외롭기도 해서, 고향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 즉 제롬을 향한 애상곡을 ‘리투아니아의 바람’에 바친 이유이다. 하지만 가끔 제롬도 나만큼이나 망명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요나스 메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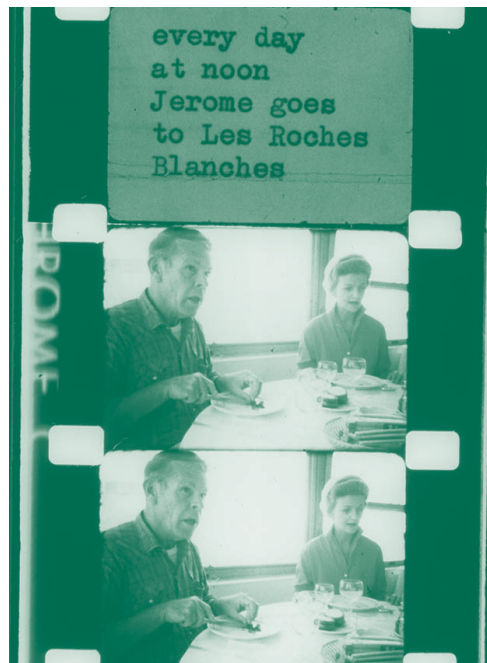
## Notes for Jerome

Jonas Mekas | USA | 1978 | 45min | 16mm on HD | Color

During the summer of 1966 I spent two months in Cassis, as a guest of Jerome Hill. I visited him briefly again in 1967, with P. Adams Sitney. The footage of this film comes from those two visits. Later, after Jerome died, I visited his Cassis home in 1974. Footage of that visit constitutes the epilogue of the film.

Other people appear in the film, all friends of Jerome: Taylor Mead, Bernadette Lafont, Charles Rydell; Barbara Stone and David Stone and their children; Noel Burch, Judith Malina and Julian Beck and the Living Theater collective; Mrs. Chaliapin, Jean-Jacques Lebel, Michel Fontayne; Alec Wilder, P. Adams Sitney and Julie Sitney; and Jerome's perhaps closest and oldest friend, whose name I forgot, but whom he always called Rosebud. Those were happy but lonely summers for me, I thought a lot about home. That's why this film, this elegy for Jerome is dedicated 'to the wind of Lithuania'. Sometimes, though, I had a feeling that Jerome was as much of an exile as was I.

—Jonas Mekas



## 천국은 아직 여기에 (세 살을 맞이한 우나)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79 | 96min | 16mm | Color

이 작품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대목의 배경은 뉴욕이다. 일상생활과 소호의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 세 번째 돌을 맞은 우리 딸 우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두 번째 부분은 매우 짧은데, 스위스에서 안나 레나 비봄을 방문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세 번째 부분은 리투아니아가 배경이다. 나와 아내 홀리스, 그리고 두 살 반 된 우나가 어머니의 아흔 번째 생신을 맞아 댁을 방문했다. 네 번째 부분은 오스트리아의 프린젠도르프에 사는 피터 쿠벨카와 헤르만 니치를 방문한 장면이다. 우리는 헤르만의 와인을 맛보고 피터의 당나귀들과 대화를 했다. 여섯 번째 부분에서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다. 뉴욕 북부에 사는 월러드 반 다이크를 방문한 것인데, 우나의 세 번째 생일, 브룸 가에 난 화재, 일상생활의 장면, 그리고 겨울 폭풍의 시작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영화 일기이지만 동시에 낙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우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 이 편지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기억이라곤 그저 작은 파편으로만 남은 세 살 무렵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어땠는지를 희미하게 상기시킬 것이다. 인공적인 것과 상업주의로 가득하고 몸과 영혼에 독약 같은 세계 속에서 삶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낭만주의자로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 Paradise Not Yet Lost (a.k.a. Oona's Third Year)

Jonas Mekas | USA | 1979 | 96min | 16mm | Color

The film is divided into six parts. The first part takes place in New York. We see a lot of home life and SoHo. We see a lot of our daughter Oona whose third year of life this is. The second, very brief part, takes place in Sweden, visiting Anna Lena Wibom. The third part takes place in Lithuania. Myself, my wife Hollis, and our 2-1/2 year old daughter Oona visit my mother on the occasion of her 90th birthday. The fourth part is in Austria, visiting Peter Kubelka and Hermann Nitsch in Prinzenhof. We taste Hermann's wine, we talk to Peter's donkeys. The sixth part is back in New York; a visit to Willard Van Dyke, upstate; Oona's third birthday; a fire on Broome Street; more home scenes; the beginning of winter storms.

It's a diary film but also it is a meditation on the theme of Paradise. It is a letter to Oona; to serve her, some day, as a distant reminder of how the world around her looked during the third year of her life — a period of which there will be only tiny fragments left in her memory — and to provide her with a romantic's guide to the essential values of life — in a world of artificiality, commercialism, and bodily and spiritual poison.

—Jonas Mekas



## 그는 삶의 시간들을 세며 사막에 서 있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85 | 150min | 16mm on HD | Color

1969년에서 1985년 사이에 촬영된 작품이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최종 작품에 포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푸티지를 촬영했다. 작품은 개인적인 내용이 최대한 배제된 푸티지들로 구성되었다. 원래는 이 작품을 ‘인류학적 스케치’로 부를 생각이었다. 이 작품은 사람, 활동, 사건, 그리고 나 스스로가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 나의 삶 바깥, 혹은 바깥에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의 장면과 스케치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는 무관한 재료들에 온기를 부여하기 위해 내 개인적인 삶에서 비롯된 스케치도 일부 포함시켰다. 이 시기에 촬영한 영화가 두 편 더 있다. 하나는 내 ‘개인적인’ 자료들(집과 친구들)이 모두 들어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자료들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에는 각각 30초에서 2분가량 되는 124개의 짧은 스케치들이 들어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초상, 공간, 계절, 날씨(폭풍, 눈, 눈보라 등), 영화감독 친구들, 뉴욕의 거리와 공원, 자연으로 떠난 짧은 도피와 같이 극적이거나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서 이제는 개인적이고 짧은 스케치에만 남은 삶에 대한 환희를 다루고 있다. “당신은 일기를 기록하고 일기는 당신을 기록한다.” (메이 웨스트가, 피터 비어드에게)  
—요나스 메카스



## He Stands in a Desert Counting the Seconds of His Life

Jonas Mekas | USA | 1985 | 150min | 16mm on HD | Color

Filmed 1969-1985. During the same period I shot much more footage than what you see in *He Stands*... I am including in this film only the most impersonal footage. Originally, I was planning to call this film Anthropological Sketches. It consists of scenes, sketches of people, activities, happenings, events outside – or almost outside – of my life which I am observing from a slight distance. There are some sketches that are from my personal life, I include them to balance, to warm up the impersonal material. There will be two more films from the same period: one will include all my “personal” material (home, friends), the other all my “abstract” material. The film consists of 124 brief sketches, each half-a-minute to about two minutes long. Portraits of people I have spent time with, places, seasons of the year, weather (storms, snow, blizzards, etc.), many of my film-maker friends, streets and parks of New York, brief escapes into the nature, out of town – nothing spectacular, all very insignificant, unimportant celebrations of life that have gone, by now, and remains only a record in these personal, brief sketches.  
“You keep a diary and the diary will keep you.” (Mae West, to Peter Beard)  
—Jonas Mekas

## 앤디 워홀의 삶의 장면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0 | 35min | 16mm on HD | Color

이 작품은 1965-1982년에 촬영한 것으로 앤디 워홀과 관련된 내 일기 영화로 구성되었다. 배경은 앤디 워홀의 팩토리, 조지 마키우나스의 집, 빌리지 게이트 바, 정신과 의사의 관습, 스티븐 쇼어의 집, 워홀의 사유지 등이 있는 뉴욕과 몬타크이다. 루 리드, 니코, 에디 세즈윅, 제라드 말랑가, 앤디 워홀, 앨런 긴즈버그, 에드 샌더스, 바바라 루빈, 톨리 쿠퍼버그, 피터 오를로프스키, 존 레논, 요코 오노, 조지 마키우나스, 빈센트 프렘몬트, 헨리 겔드젤러, 폴 모리세이, 카렌 레너, 제이 레너, 피터 비어드, 존 케네디 주니어, 리 라지윌, 티나 라지윌, 앤소니 라지윌, 달레산드로, 캐롤라인 케네디, 믹 재거, 제이드 재거 외 다수가 등장한다. 1990년 6월에 완성했다.  
—요나스 메카스

## Scenes from the Life of Andy Warhol

Jonas Mekas | USA | 1990 | 35min | 16mm on HD | Color

The film is made up of my film diaries related to Andy Warhol from the years 1965-1982. Locations are New York and Montauk: The Factory, house of George Maciunas, village gate, psychiatrist's convention, home of Stephen Shore, Warhol Estate, Montauk, etc. The “cast” includes Lou Reed, Nico, Edie Sedgwick, Gerard Malanga, Andy Warhol, Allen Ginsberg, Ed Sanders, Barbara Rubin, Tuli Kupferberg, Peter Orlovsky, John Lennon, Yoko Ono, George Maciunas, Vincent Fremont, Henry Geldzahler, Paul Morrissey, Karen Lerner, Jay Lerner, Peter Beard, John Kennedy Jr., Lee Radziwill, Tina Radziwill, Anthony Radziwill, D'Allessandro, Caroline Kennedy, Mick Jagger, Jade Jagger and many others. Completed in June, 1990.  
—Jonas Mekas





## 제피로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2 | 34min | 16mm on HD | B&W/Color

1952-1978년에 조지 마키우나스를 찍은 푸티지들이다. 그의 부모님, 플럭서스 활동, 사생활과 친구들을 찍은 푸티지들이 등장한다. 요코 오노, 존 레논, 앤디 워홀, 조 존스, 알무스 살시우스 외 다수가 출연한다. 사운드트랙은 몬테베르디의 성악곡 “제피로 토르나” 그리고 마키우나스가 죽기 전 마지막 해를 보낼 때 요나스 메카스가 쓴 일기를 낭독한 소리이다.

##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6 | 24min | 16mm on HD | Color

1972년 10월 9일, 플럭서스 운동의 지도자 조지 마키우나스가 디자인하고 데이비드 로스가 기획한 존 레논과 요코 오노의 전시가 시러큐스 미술관에서 열렸다. 그날 링고, 앨런 긴즈버그, 폴 크래스너 등을 포함한 존과 요코의 유별난 친구들이 모여 존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 영화는 그 이벤트에 대한 시청각적 기록이다. 링고, 존, 요코, 그리고 친구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깔끔한 스튜디오 녹음이 아닌 생일 파티에서 부르는 자유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담겨있다. 1971 6월 12일, 존과 요코가 에이전트인 클라인과 함께 파티를 하는 모습, 1972년 8월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존과 요코의 공연, 존 레논이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센트럴 파크에서 있었던 추모의 행렬,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서 찍은 존과 요코의 장면들이 ‘뮤직비디오’로 발전해간다.



제피로 토르나 혹은 조지 마키우나스의 삶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 Zefiro Torna or Scenes from the Life of George Maciunas

Jonas Mekas | USA | 1992 | 34min | 16mm on HD | B&W/Color

Footage of George Maciunas taken between 1952 and 1978. The film includes footage of his parents, footage of many Fluxus events and scenes from Maciunas' private life and friends. Such as Yoko Ono, John Lennon, Andy Warhol, Joe Jones, Almus Salcius, and many others. Soundtrack: A madrigal by Monteverdi (Zefiro Torna); Jonas Mekas reading from the diaries kept during the last year of Maciunas' life.

## Happy Birthday to John

Jonas Mekas | USA | 1996 | 24min | 16mm on HD | Color

October 9, 1972, an exhibition of John Lennon/ Yoko Ono's art, designed by the Master of the Fluxus movement, George Maciunas, opened at the Syracuse Museum of Art, curated by David Ross. Same day an unusual group of John and Yoko friends, including Ringo, Allen Ginsberg, Paul Krasner, and many others, gathered to celebrate John's birthday. This film is a visual and audio record of that event. We hear improvised songs, sung by Ringo, John, Yoko and their friends, not as a clean studio recording, but as a birthday party singing, free and happy. There are other images included in the film that develops like a "music video": the John & Yoko party at Klein's (their agent), June 12, 1971; August 1972, John and Yoko concert at Madison Square Garden; the Central Park Vigil after John was shot; and some other footage that I have taken on different occasions of John and Yoko.



생일 축하해요, 존 레논 Happy Birthday to John

## 천국의 이편: 미완성 전기의 단편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9 | 35min | 16mm on HD | Color

내 삶의 주요 사건들이 대개 그러했듯, 우연히 재클린 케네디와 그녀의 여동생 리 라지윌 가족,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몇 해 동안 대체로 여름의 나날들을 함께 보내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의 우정에 필수적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는 바로 영화였다. 당시는 여전히 존 F. 케네디의 때아닌 비극적 죽음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재키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삶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할 일을 주고 싶어 했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아이들에게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피터 비어드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가르쳐줄 책임자로 나를 재키에게 추천했다. 재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이 작품의 이미지들은 대개 리가 앤디 워홀에게서 빌린 몬탁의 낡은 집에서 캐롤라인과 존 주니어가 사촌인 앤소니와 티나 라지윌과 함께 보낸 여러 해의 여름을 담은 것이다. 행복, 기쁨, 삶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우정으로 가득한 여름들이었다. 이때야말로 낙원의 작은 파편들에 다름없었다.

—요나스 메카스

## This Side of Paradise: Fragments of an Unfinished Biography

Jonas Mekas | USA | 1999 | 35min | 16mm on HD | Color

Unpredictably, as most of my life's key events have been, for a period of several years of late sixties and early seventies, I had the fortune to spend some time, mostly during the summers, with Jackie Kennedy's and her sister Lee Radziwill's families and children. Cinema was an integral, inseparable, as a matter of fact, a key part of our friendship. The time was still very close to the untimely, tragic death of John F. Kennedy. Jackie wanted to give something to her children to do, to help to ease the transition, life without a father. One of her thoughts was that a movie camera would be fun for children. Peter Beard suggested to Jackie that I was the man to introduce the children to cinema. Jackie said yes. And that's how it all began. The images in this film, with a few exceptions, all come from the summers Caroline and John Jr. spent in Montauk, with their cousins Anthony and Tina Radziwill, in an old house Lee had rented from Andy Warhol, for a few summers. These were summers of happiness, joy and continuous celebrations of life and friendships. These were days of Little Fragments of Paradise.  
—Jonas Mekas



## 우연히 나는 아름다움의 섬광을 보았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0 | 288min | 16mm | Color

1970-1999년 사이의 내 일기 영화이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다룬다. 일상생활, 행복과 아름다움의 파편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지로 떠난 여행들. 뉴욕을 스쳐가는 계절들. 친구들, 가정생활, 자연. 놀라운 것도 특별한 것도 없이 우리가 살면서 모두 겪는 것들. 당시의 내 생각을 드러내는 인터타이틀이 여러 번 등장한다. 이미지들과 동일한 시기에 녹음한 음악과 소리들이 사운드트랙을 구성한다. 오귀스트 바카리스가 피아노 즉흥 연주를 했다.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이 이미지들을 편집할 때, 나는 가끔 녹음기에 대고 대화를 한다. 이 작품은 또한 뉴욕, 그리고 그곳의 여름, 겨울, 거리와 공원에 대한 나의 연가이기도 하다. ‘도그마 95’\*가 등장하기도 전에 나온 궁극의 도그마 영화이다.

—요나스 메카스

“메카스는 팔순에 가까운 노인의 높은 목소리로 종종 자신의 영화에서 사실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즐거이 말하며 화면 바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288분 중 단 1분도 지루할 틈이 없다. 그 이유는 아마 메카스가 이미지로부터 의도나 목적의 흔적조차 지워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침은 우연이며, 급진적으로 회의적인 메카스는 그것만이 진정한 리얼리티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히 통제불가한 우연만이 그저 보통의 것에 불과했을 삶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황홀함을 선사해준다.”

—마크 지멘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퐁

\*1995년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주도로 네 명의 젊은 덴마크 영화감독들이 영화제작에서 준수해야 할 열 개의 항목이 담긴 선언서를 발표하며 만든 영화집단.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상화된 특수효과 등을 모두 거부하며,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카메라의 현장감과 미학적 효과를 선택했다.

##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Jonas Mekas | USA | 2000 | 288min | 16mm | Color

My film diaries 1970-1999. It covers my marriage, children are born, you see them growing up. Footage of daily life, fragments of happiness and beauty, trips to France, Italy, Spain, Austria. Seasons of the year as they pass through New York. Friends, home life, nature. Nothing extraordinary, nothing special, things that we all experience as we go through our lives. There are many inter-titles that reflect my thoughts of the period. The soundtrack consists of music and sounds recorded mostly during the same period from which the images came. The piano improvisations are by Auguste Varkalis. Sometimes I talk into my tape recorder, as I edit these images, now, from a distance of time. The film is also my love poem to New York, its summers, its winters, streets, parks. It's the ultimate Dogma 95 movie, before the birth of Dogma.

—Jonas Mekas

“Mekas tells the story off-screen, with the reedy voice of a man approaching 80, who takes quiet amusement in telling viewers every so often that nothing really happens in this film... That is the honest truth, and yet not one of the 288 minutes is boring. The reason may be that Mekas has expunged all traces of intent or purpose from the images. The only guiding rule is coincidence, which the radically skeptical Mekas sees as the only gateway to true reality. Only utterly ungovernable coincidence paves the way for the ecstasy that makes one aware of the beauty in an otherwise normal life.”

—Mark Siemen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4 | 80min | SD | Color

2004년 2월에 소호에서의 30년 생활을 정리하고 브루클린 그린포인트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작품은 그 어디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자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날 때의 감상을 주제로 한다. 나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 새로운 친구, 생각, 경험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집에 뿌리내리는 것을 다룬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영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1949년에 볼렉스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그 카메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완전히 숙달되는 데에는 15년이 걸렸다. 1987년에는 처음으로 소니 카메라를 장만했고, 다루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비디오 카메라로 15년간 작업을 하고 나니 마치 장비가 내 눈과 몸의 연장이 된 것 같다. <그린포인트에서 온 편지>는 사실상 첫 번째 비디오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요나스 메카스

## A Letter from Greenpoint

Jonas Mekas | USA | 2004 | 80min | SD | Color

In February 2004, after 30 years of my life in SoHo, I made a decision to leave SoHo and move to Greenpoint, Brooklyn. This video is about what it feels like to leave a place in which one has spent more time than any other place, and which was also the place of my family life. I am somewhere else now. It's about beginning of growing roots in a new place, new home, with new friends, new thoughts, experiences. But this video is also about video. When in 1949 I began filming with my Bolex, it took me fifteen years to really master it so that my Bolex would do for me what I wanted. When in 1987 I got my first Sony camera I thought it would be different. But no. Only today, after working with the video camera for fifteen years, I feel like it had become an extension of my eye, my body, *A Letter from Greenpoint* being my first real video work.

—Jonas Mekas





## 마틴 스코르세지에 관한 노트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5 | 80min | SD | Color

마틴 스코르세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뉴욕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학생이었고, 내 영화 상영회에도 종종 오곤 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가 첫 장편 영화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를 만든 때부터 시작됐다. 나와 내 동생인 아돌파스, 그리고 셸리 클라크는 마틴과 함께 두 시간짜리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의 영화를 홍보했다. 우리 모두 즐거웠고, 여전히 그때의 녹화 테이프를 갖고 있다.

마틴의 회고전 때 그를 소개하는 5-10분 길이의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침 마틴은 <디파티드>를 촬영하고 있었다. 1-2주 정도 따라다녀도 괜찮겠냐는 물음에 그는 좋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내 아들인 세바스찬은 보조 촬영으로 동행했다. 우선 짧은 버전을 만들었고 이후에 더 긴 버전을 만들었다. 우리는 모두 마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촬영은 아주 즐거웠다! 이 작품은 실내악 같은 영화이자 친구에 대한 개인적인 헌사이다.

—요나스 메카스

## Notes on an American Film Director at Work: Martin Scorsese

Jonas Mekas | USA | 2005 | 80min | SD | Color

I originally met Martin Scorsese when he was still a film student at the New York University. He used to come to my film screenings. But our real friendship began when he made his first feature film, *Who's That Knocking at My Door*. My brother Adolfo, Shirley Clarke and myself, we joined Marty in a two-hour radio program to plug the opening of his film. We had great time doing it. I still have the tape of it.

I was asked to make a five to ten minute film about Marty to introduce his retrospective. As it happened, Marty was shooting *The Departed* at that time. I asked him if I could follow him for a week or two, and he said yes. So that's how this film happened. Sebastian, my son, joined me with a second camera. I did a brief version, and proceeded with a longer one. We all had a great time working on it because we all love Marty! It's a chamber kind of movie, a personal tribute to a friend.

—Jonas Mekas



## 서신교환: 요나스 메카스 — 호세 루이스 게린

요나스 메카스, 호세 루이스 게린 | 미국 | 2011 | 100min | SD | Color

호세 루이스 게린과 요나스 메카스가 다섯 통의 편지를 통해 영화, 리얼리즘, 삶에 대한 아이디어, 생각, 비전과 사유를 주고받는다. [...] 감독은 각각 자신의 작업 방식에 대해 강력한 통찰을 주는 코멘터리와 함께 과거의 이미지들을 살펴본다. 이 영화는 우정과 기술, 시와 영화, 소통의 방식, 그리고 스크린에 포착된 삶의 파편들을 다룬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나에게는 촬영 욕구가 있다.” 메카스가 말한다. “무엇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서신교환>은 이러한 여정의 시각적인 자취이자 “세상이란 우리의 상상력을 위한 캔버스일 뿐”이라는 소로의 격언에 대한 인상 깊은 사례이다.”

—마리아 델가도 (BFI)

## Correspondence: Jonas Mekas — José Luis Guerín

Jonas Mekas, José Luis Guerín | USA | 2011 | 100min | SD | Color

In a series of five letters to each other, José Luis Guerín and Jonas Mekas exchange ideas, thoughts, visions and reflections on cinema, realism and life. [...] Each filmmaker revisits past images, framed by commentaries that offer telling insights into their working methodologies. This is a film about friendship and craft, about poetry and cinema, modes of communicating and fragments of life captured on screen. “I have a need to tape, for whatever reason,” states Mekas, “I do not know what makes me do it, but I have to do it, I just have to do it.” *Correspondence* is both a visual trace of this journey and a memorable illustration of Thoreau's dictum that “the world is but a canvas to our imaginations.”

—Maria Delgado (BFI)



## 회신: 마키우나스 & 플럭서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11 | 87min | SD | Color

플럭서스 퍼포먼스 중 인상적인 장면들을 모은 영상 작업. 조지 마키우나스, 백남준, 벤 보티에, 요셉 보이스 외 다수가 등장한다. 뉴욕에서 열린 퍼포마 11에서의 상영을 위해 함께 편집했다.

“영혼이자 몸, 플럭서스 운동의 바넘과 베일리이자, 명상적인 유머에 능하고, 하찮고 미묘한 것에 통달한, 뉴욕 소호 협동조합주택 운동의 창시자인 조지 마키우나스는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예술적 전환에 근본적인 기여를 했다.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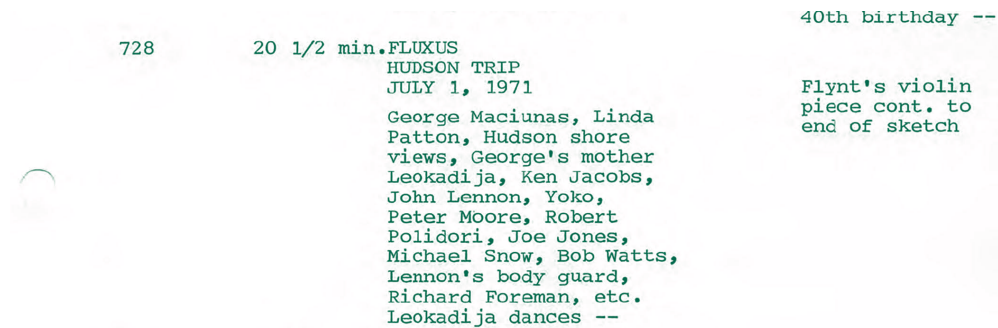
—요나스 메카스, “플럭스 친구들,” 풍피두 센터, 2002

## Re: Maciunas & Fluxus

Jonas Mekas | USA | 2011 | 87min | SD | Color

A selection of some memorable moments from Fluxus performances. With George Maciunas, Nam June Paik, Ben Vautier, Joseph Beuys and many others. Edited together for a screening at the Performa Festival 2011.

“George Maciunas – spirit and body, Barnum and Bailey of Fluxus movement; the zen humorist, a genius of the insignificant and the subtle; creator of SoHo and the cooperative housing movement – contributed fundamentally to the evolution of 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His influence will still be felt in the century to come.”  
—Jonas Mekas, *Flux Friends*, Centre Pompidou, 2002



## 잠 못 드는 밤 이야기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11 | 114min | SD | Color

이 작품은 『천일야화』에 대한 나의 독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의 아라비아 이야기들과 달리 내 이야기는 이따금 나날이 반복되는 삶 너머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지만 모두 실제 삶에서 비롯되었다. 내 영화에는 25개 정도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 주인공은 모두 내 친한 친구들이고 나 또한 이 이야기와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화자 또한 그가 전하는 이야기의 일부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야기와 별 상관이 없다. 다들 결국 존 웨인과 아네트 베닝을 알아보겠지만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다양한 감정, 지역, 개인적인 불안, 일화들을 아우른다. 이 이야기들은 영화관에 어울리는 큰 이야기들은 아니다. 모두 개인적으로는 큰 이야기들이다. 물론 도발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 즉 여러 ‘나’ 중 하나이며, “이야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야말로 도발적인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패티 스미스, 비요크, 루이즈 부르주아, 루이 가렐,  
요코 오노 등과 함께 했다.

## Sleepless Nights Stories

Jonas Mekas | USA | 2011 | 114min | SD | Color

This film originated from my readings of the *One Thousand and One Nights*. But unlike the Arabian tales, my stories are all from real life, though at times they too wander into somewhere else, beyond the everyday routine reality.

There are some twenty-five different stories in my movie. Their protagonists are all my good friends and I myself am an inseparable part of the stories. The storyteller of the *Arabian Nights* was also part of his or her tales.

Some of the people in the movie you’ll recognize, some not. The fact that some of them you’ll recognize has no bearing on the stories: after all, we all recognize John Wayne or Annette Bening, but in their stories they are no longer the people we know.

The subjects of the stories cover a wide range of emotions, geographies, personal anxieties, anecdotes. These are not very big stories, not for the Big Screen: these are all personal big stories... And yes, you’ll also find some provocations... But that’s me, one ‘me’ of many. The very question “What is a story?” is a provocative question.

—Jonas Mekas

With Patti Smith, Björk, Louise Bourgeois, Louis Garrel,  
Yoko Ono and others.





##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12 | 68min | SD | Color

내 편집실에는 195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필름 캔들이 가득한 선반이 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완성된 필름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인데 어찌어찌 다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영화 제작 용어로 말하자면 아웃테이크들이다. 이 아웃테이크는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일부는 이미 바랬다. 서펜타인 갤러리의 전시를 앞두고 마침내 이 푸티지들을 모두 모아 나의 마지막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영화가 바로 그 결심의 결과물이다. 푸티지들은 주로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고, 친구, 도시, 자연, 그리고 리투아니아로의 여행의 기록도 많다. 모두 내가 흔히 사용하는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질서”에 따라 모았다. —요나스 메카스

## 윌리엄스버그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3 | 15min | HD | Color | Silent

뉴욕, 더 정확히 말해 브루클린에서의 첫해인 1950년에 찍은 푸티지이다. 윌리엄스버그는 주로 리투아니아 이민자들과 하시드교인들이 살고 있는 브루클린의 작고 비참한 지역이다. 그곳이 나의 새로운 집이었다. 비참한 집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집이었다. 헨리 밀러가 윌리엄스버그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매일 그의 집을 지나쳤다. 그곳에 가게 되어 행복했다. 그리고 난 자유였다! 자유인 데다 첫 볼렉스 카메라를 막 얻은 참이었다. —요나스 메카스



행복한 삶의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 Out-Takes from the Life of a Happy Man

Jonas Mekas | USA | 2012 | 68min | SD | Color

In my editing room there is a shelf with many cans of film going back as far as 1950. There are all materials that relate to my finished films, from 1950 till now, but they somehow could find place in them. They are, in film-making language, outtakes. And they are all slowly fading. Some are already faded. On the occasion of my Serpentine show, I decided that the time had come to finally collect all this footage in my final film – as – film. Result of that decision is this film. Footage covers a lot of home life and materials that I took of my friends, the city, nature, and during the visits to Lithuania. All put together in my usual random chance “order.” —Jonas Mekas

## Williamsburg

Jonas Mekas | USA | 2003 | 15min | HD | Color | Silent

Footage I shot in 1950, my first year in New York, more precisely, in Brooklyn. Williamsburg was a small miserable part of Brooklyn inhabited at that time mostly by Lithuanian immigrants and Hassids. That was my new home. Miserable home but home. And I knew that Henry Miller had lived in Williamsburg. I passed his house every day. So I was happy to be there. And I was free! I was free and I had just acquired my first Bolex camera. —Jonas Mekas



윌리엄스버그 *Williamsburg*

##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Jonas tourne toujours

피프 초도로프 | 프랑스 | 2002 | 10 min | SD | Color

80번째 생일을 맞아 2002년 파리에서 열린 메카스의 회고전에 대한 짧은 기록. 클립과 인터뷰를 통해, 메카스는 그의 첫 미국 도착, 뉴욕에서의 초기 생활, 그리고 그의 첫 영화 제작 경험을 회상한다. 그의 삶과 작업에 대한 소개이며, 아르떼 프랑스 채널이 제작했다.

## 카시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6 | 4min | 16mm on HD | Color

프랑스 남부의 작은 항구, 등대 하나, 그리고 바다. 해는 1966년이었고, 7월이었다. 제롬 힐을 찾아갔다. 제롬은 프랑스, 특히 프로방스를 좋아했다. 그는 매년 여름을 카시스에서 보냈다. 내 방 창문이 바다를 향해 나 있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머무르는 곳 바로 뒤편에 있던 화가 시냇의 스튜디오에서 보는 것과 정확히 같은 빛의 각도로 내 볼렉스 카메라를 맞춰 놓고 아침부터 해 질 녘까지,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기로 했다. 이 영화는 그 결과물이다. —요나스 메카스



요나스는 계속 촬영한다 *Jonas Keeps Shooting Around*

## Jonas Keeps Shooting Around

Pip Chodorov | France | 2002 | 10 min | SD | Color

A short portrait of Jonas Mekas on the occasion of his 2002 retrospective in Paris (for his 80th birthday). Through film clips and interviews, Mekas recounts his arrival in America, his early life in New York and his first filmmaking experiences.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Produced by Arte for French television.

## Cassis

Jonas Mekas | USA | 1966 | 4min | 16mm on HD | Color

A small port in South of France, a lighthouse, the sea. The year was 1966. The month of July. I was visiting Jerome Hill. Jerome loved France, especially Provence. He spent all his summers in Cassis. My window overlooked the sea. I sat in my little room, reading or writing, and looked at the sea. I decided to place my Bolex exactly at the angle of light as what Signac saw from his studio which was just behind where I was staying, and film the view from morning till after sunset, frame by frame. This film is the result of it. —Jonas Mekas



카시스 *Cassis*

## 하레 크리슈나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6 | 4min | 16mm on HD | Color

1966년 11월 5일에 촬영했다. 필립 코너, 바바라 루빈, 하레 크리슈나 운동의 창시자 스와미 프라부파다와 함께 했다. 사운드는 앨런 긴즈버그와 참여자들. 어느 일요일 오후, 뉴욕의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도시의 거리에서 춤을 추며 “하레 하레” 하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와 공기를 사랑으로 가득 채운다. 때는 뉴에이지의 시작이었고, 앨런 긴즈버그와 피터 오를로프스키의 노래가 사운드트랙으로 흘러나온다.  
—요나스 메카스

## 밀브룩에서 온 소식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6 | 12min | 16mm on HD | Color

이 작품은 1965년 한 주말에 티모시 리어리의 집에 방문해서 찍은 것이다. 가벼운 여름 나들이였다. 나는 LSD를 하지 않는다. 티모시가 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LSD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작은 다리에 이르러 멈췄다. 조용히 개울을 바라보았다. 티모시가 침묵을 깼다. 그가 이르길, 모두가 그의 관리 하에 LSD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고무시키는 화학물질이 LSD나 그 어떤 마약보다 더 강력하고 신비롭다고 말했다. 이 썸에서 우리는 산책을 끝내고 되돌아 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1966년, 지역 보안관이 티모시의 집을 급습했다. 『이스트 빌리지 아더』가 집을 급습했던 보안관과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를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으로 사용했다.  
—요나스 메카스



하레 크리슈나 *Hare Krishna*

## Hare Krishna

Jonas Mekas | USA | 1966 | 4min | 16mm on HD | Color

Filmed on Nov. 5th, 1966. With Phil Corner, Barbara Rubin, Srila Prabhupada. Sound: Allen Ginsberg and the participants. One Sunday afternoon in New York – beautiful new generation – dancing in the streets of New York – singing “Hare Hare” – filling the streets and the air with love – in the very beginning of the New Age – Allen Ginsberg and Peter Orlovsky (on soundtrack) singing.  
—Jonas Mekas

## Report from Millbrook

Jonas Mekas | USA | 1966 | 12min | 16mm on HD | Color

*Report From Millbrook* was filmed in 1965, on a weekend visit to Timothy Leary’s place. It was a light summer outing. No LSD. Tim took me for a walk, though, and we talked about LSD. At one point in our walk we stopped on a little bridge. We looked into the stream silently. Tim broke the silence. He had noticed, he said, that I was only reading while other guests were using the occasion, under his supervision to go through an LSD experience. I told him that the chemicals that motivate and drive artists are more powerful and mysterious than LSD or any drug. On that note we turned back and ended our walk. There was nothing more to say. In 1966, Tim’s place was raided by the local sheriff. *The East Village Other* taped an interview with the sheriff about the raid. I used the interview as the soundtrack for the film.  
—Jonas Mekas



밀브룩에서 온 소식 *Report from Millbrook*

## 여행 서사시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3 | 28min | 16mm on HD | Color | Silent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노래들’ 혹은 부분들: 아빌라(스페인), 스톡홀름, 모스크바,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찍은 푸티지. 스쳐가는 이미지들, 수많은 싱글 프레임들의 움직임.

## 사중주 1번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1 | 8min | 16mm on HD | Color

1991년 즈음에 내 선반에 쌓여 있는 수많은 미편집 푸티지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바래버리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다. 한 가지 방안은 모두 사중주의 형식으로 편집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은 사중주 형식으로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이다. 하지만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지 않았다. 대신 보다 큰 아이디어를 단초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물이 <우연히 나는 아름다움의 섬광을 보았다>이다. 이 영화는 ‘사중주’로 알려진 형식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1991년에 나는 미편집된 자전적 필름 자료들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절망한 상태였고, 이에 대처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이 영화는 그 탐구의 결과물이다.  
—요나스 메카스



여행 서사시 *Travel Songs*

## Travel Songs

Jonas Mekas | USA | 2003 | 23min | 16mm on HD | Color | Silent

Five different “songs” or segments: footage from Avila (Spain), Stockholm, Moscow, Assisi, Italy. Brief images, a lot of single frame activity.

## Quartet Number One

Jonas Mekas | USA | 1991 | 8min | 16mm on HD | Color

Around 1991 I began to worry about the huge amount of unedited footage that I had on my shelves. I had to do something with it before it begins to fade. One idea was to begin to edit it all in form of quartets. This quartet was my first try in that direction. I was not too happy with it and did not continue the project. Instead, I began working on a much bigger idea which resulted in *As I Was Moving Ahead Occasionally I Saw Brief Glimpses of Beauty*. The film doesn’t have much to do with the form of what’s known as Quartet. In 1991 I was despairing with the amount of unedited diaristic material that I had. I was searching for ways of dealing with it. This film is a result of my searching.  
—Jonas Mekas



사중주 1번 *Quartet Number One*



## 아비뇽의 노래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8 | 5min | 16mm | Color

내가 겪고 있던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1966년 아비뇽 여행에 대한 반추. 당시에 촬영한 무작위의 이미지들, 아비뇽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내다보이는 일출 등. 사운드트랙: 앵거스 맥라이즈가 낭독한 당시의 내 일기 텍스트.  
—요나스 메카스

##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

핍 초도로프 | 프랑스 | 2001 | 6 min | SD | Color

1970년에 요나스 메카스가 설립한 독립영화 박물관인 뉴욕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에 대한 짤막한 묘사이다. 메카스와 그의 리투아니아 친구들을 포함해 몇몇 직원들을 인터뷰 했다. 아르떼 프랑스 채널이 제작했다.



아비뇽의 노래 *Song of Avignon*

## Song of Avignon

Jonas Mekas | USA | 1998 | 5min | 16mm | Color

Reflections on my 1966 trip to Avignon that helped me to survive a deep crisis I was going through. Some random images from the period, the sunrise approaching Avignon, from the train, etc. Sound-track: texts from my diaries of that period, read by Angus MacLise.  
—Jonas Mekas

## Anthology Film Archives

Pip Chodorov | France | 2001 | 6 min | SD | Color

A short portrait of Anthology Film Archives, New York's museum of independent cinema founded by Jonas Mekas in 1970. Features interviews with some of the workers including Mekas and some of his Lithuanian friends. Produced by Arte for French television.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 *Anthology Film Archives*

##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3 | 20min | 16mm on HD | B&W

1963년 봄, 『쇼』라는 잡지에서 내게 뉴욕의 예술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했다. 그걸 왜 내가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다. 내가 그들과 잘 맞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들은 “특이한 걸 원하니까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당시 뉴욕에서 예술과 관련해 새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릴을 제작했다. 그런데 『쇼』 관계자들은 그 영화의 1차 편집본을 보고 매우 화를 냈다. “『쇼』 잡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게 뉴욕의 예술과 무슨 상관이예요!”라고 응수했다. 다툼은 빨리 종결됐다. 영화는 폐기되었다. 정말이지 그들이 그 영화를 가지고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영화 <영화잡지의 예술관련 영화>는 첫 컷의 워크프린트\*만 남아 있다.  
—요나스 메카스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을 인화한 편집용 포지티브 필름

## Film Magazine of the Arts

Jonas Mekas | USA | 1963 | 20min | 16mm on HD | B&W

In Spring, 1963, *Show* magazine asked me to make a film on arts in New York. I told them, why did they want me to make it – didn't they know I was a bit off their track? ... “We want something unusual,” they said. So I went out and made a newsreel on the arts, about what was happening new in the arts in New York at that time. *Show* people looked at the rough cut of the film and became very angry. “But there is nothing about *Show* magazine in the movie,” they said. “What has that to do with arts in New York!” I said. The battle was short. The film was destroyed. Really, I have no idea what they did with it. This work print of the first cut of the *Film Magazine of the Arts* is the only version of it in existence.  
—Jonas Mekas



## 에릭 호킨스: <지금 여기서 바라보다>에서 발췌 / 루치아 들루고셰프스키 연주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83 | 6min | 16mm

1963년에 『쇼』라는 잡지가 홍보 영화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이 영화를 예술에 초점을 맞춘 정기 간행물로 생각했다. 이 영화를 위해 에릭 호킨스와 루치아 들루고셰프스키를 촬영했다. 『쇼』의 관계자들은 영화의 1차 편집본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든 자료를 반환하라고 했다. 하지만 워크프린트와 잘라낸 장면들은 내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영상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저화질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루치아 들루고셰프스키를 가장 중요한 동시대 작곡가로 생각한다.

—요나스 메카스



## Erick Hawkins: Excerpts from "Here and Now with Watchers" / Lucia Dlugoszewski Performs

Jonas Mekas | USA | 1983 | 6min | 16mm | Color

In 1963, a magazine called *Show* commissioned me to make a promotion film for them. I conceived the film as a film periodical devoted to the arts. I filmed Erick Hawkins and Lucia Dlugoszewski for the film. The *Show* people looked at the raw cut of the film, decided they hated it, and asked me to turn all the materials over to them. I kept the workprint and some of the outs. That accounts for the generally poor quality of the image. I should add that I consider Lucia Dlugoszewski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composers.

—Jonas Mekas

## 앤디 워홀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4 | 12min | 16mm | B&W

1964년에 잡지 『필름 컬처』는 매년 수여하는 독립영화상의 수상자로 앤디 워홀을 선정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을 몇 편 보여준 다음 그가 무대에 올라오면 상을 건네주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앤디는 공적인 자리에 나타나고 싶지 않라며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워홀의 팩토리로 가서 상을 수여하고 이를 촬영하여 뉴욕커 시어터에서 열리는 시상식 때 틀기로 했다. 앤디도 그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다. 앤디는 이를 위해 유명 인사들을 불러 모았다. 필름 세 통을 챙겨 팩토리로 향하던 중, 내가 앤디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게 기억났다. 그래서 모퉁이에서 과일 바구니를 샀다. 아이비 니콜슨의 어린 아들이 이걸 앤디에게 전해주었다. 베이비 제인 홀저, 제라드 말랑가, 아이비 니콜슨도 와 있었다. 그레고리 마르코폴로스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촬영할 수 없을 때 대신 볼렉스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고리도 영화에 등장한다. 필름을 현상하면서 영화를 느리게 만들고, 앤디에게 바치는 헌사로 팩토리의 배경음악으로 매일 틀었던 슈프림의 노래를 삽입했다.

—요나스 메카스

## Award Presentation to Andy Warhol

Jonas Mekas | USA | 1964 | 12min | 16mm | B&W

In 1964 *Film Culture* magazine chose Andy Warhol for its annual Independent Film award. The plan was to show some of Andy's films and have Andy come on stage and hand him the award. Andy said, no, he doesn't want a public presentation. So I decide to hand the award at the Factory, film the occasion, and show the film at the Award Presentation show at the New Yorker Theater. Andy thought it was a good idea. He got some of the superstars together, for the occasion. I was on my way to the Factory with three rolls of film when I remembered that I had nothing to present to Andy. So on the corner I bought a basket of mixed fruit. It was presented to Andy by Ivy Nicholson's little son. Some of the others present: Baby Jane Holzer, Gerard Malanga, Ivy Nicholson. Gregory Markopoulos happened to be there, so he operated the Bolex when I wasn't. Gregory is in the film, too, since the camera was motorized. As a tribute to Andy, I slowed down the film in printing and added Supremes music which was the daily background at the factory during those days.

—Jonas Mekas





##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83 | 23min | 16mm | Color

“케네스 킹의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1964)는 팝아트 스타일의 에세이로, 제목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이 동등하게 중요하다. 메카스는 1965년에 포스트모던 댄스에서 핵심적인 이 퍼포먼스를 아주 멋진 영화로 번역해냈다. 메카스는 부드러운 색에서 강렬한 색으로 옮겨가면서, 인간 소외라는 주제에 꼭 맞게 분리된 몸의 조각들과 사물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프레임 안에 잡는 포커스를 구사한다. 관객은 이러한 조각들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모으며 춤의 전체를 이해해야만 한다.”

—샬리 배인즈, 『빌리지 보이스』, 1983년 10월 18일.

케네스 킹과 피비 네빌이 함께 함.

## 거리의 노래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83 | 10min | 16mm on HD | B&W

“<거리의 노래>는 프랑스 리빙 시어터에서 1966년에 상연한 <미스터리와 더 작은 조각들>의 한 부분이다. 잭슨 맥로우가 1961년에 쓴 우연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거리의 노래>는 호전적인 정치 구호를 주문의 만다라로 엮어간다. 줄리안 벅이 빈 무대에 책상다리를 하고 슬로건을 반복한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폭력을 금지하라! 전쟁을 중단하라! 흑인에게 자유를! 세상을 바꾸자!” 군중의 목소리가 각 슬로건에 대답하고, 배우들이 그를 따라 원을 그리며 걸으며 서로의 어깨를 껴안고 함께 “옴...”하며 숨을 쉬면서 이 슬로건은 명상인 동시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샬리 배인즈, 『빌리지 보이스』, 1983년 10월 18일.



컵/받침/두 무용수/라디오 *Cup/Saucer/Two Dancers/Radio*

## Cup/Saucer/Two Dancers/Radio

Jonas Mekas | USA | 1983 | 23min | 16mm | Color

“Kenneth King’s *Cup/Saucer/Two Dancers/Radio*, 1964, is an essay in Pop Art style, in which all the elements listed in the title have equal emphasis. Mekas, recording a 1965 performance of this key postmodern dance, has translated it into an extraordinary film, with colors that progress from soft to bold, and with a focus that so tightly frames the objects and isolated body fragments that, fittingly for its theme of human alienation, the viewer is forced to understand the totality of the dance by putting together these scraps in the mind’s eye.”

—Sally Banes, *Village Voice*, October 18, 1983.

With Kenneth King and Phoebe Neville

## Street Songs

Jonas Mekas | USA | 1983 | 10min | 16mm on HD | B&W

“*Street Songs* is a 1966 performance, in France, of a section of the Living Theater’s *Mysteries and Smaller Pieces*. Based on a chance-determined scenario written by Jackson MacLow in 1961, *Street Songs* weaves militant political chants into a mandala of mantras. Julian Beck sits cross-legged on an empty stage; the slogan he repeats - ‘Free All Men! Ban the Bomb! Stop the War! Free the Blacks! Change the World!’ - are both meditation and calls to action, as a crowd of voices answers each slogan and actors join him on stage to pace in a circle, clasp one another’s shoulders and collectively breath ‘Ommm...’”

—Sally Banes, *Village Voice*, October 18, 1983.



거리의 노래 *Street Songs*

## 서커스에 대한 기록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66 | 12min | 16mm on HD | Color

서커스를 촬영할 때 나는 특정한 세부사항들, 움직임, 그리고 색깔에 관심이 있었다. 묘기들이 어떻게 부러지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한다. 그건 나의 관심사 밖이었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 이 영상의 동력은 색깔과 움직임에 있었고, 이는 사용하는 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카메라는 어떤 면에서 화가의 붓과 같아서 전적으로 손, 존재, 눈, 그리고 나의 총체성의 연장이다. 여러분이 보게 될 대부분의 영상은 “편집”을 거치지 않았고 “이어 붙인”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 불완전한 세 개의 이미지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5 | 6min | 16mm on HD | B&W/Color | Silent

1995년에 율리우스 지즈가 단 세 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에서 그가 조직한 “세 이미지 필름 페스티벌”에 나도 세 개의 이미지로 만든 영화를 출품하라고 했다. 이 작품은 그러한 장르의 영화에 대한 내 나름의 기여이다. 프레임별로 촬영하는 방식이 내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이미지 필름은 불완전한 것이다.

—요나스 메카스



서커스에 대한 기록 *Notes on the Circus*

## Notes on the Circus

Jonas Mekas | USA | 1966 | 12min | 16mm on HD | Color

When I filmed the *Circus*, I was interested in certain details, certain movements, certain colors. We don’t see much of how certain tricks are being performed. I didn’t go into that, that didn’t interest me. The drive was towards the color and motion. But then,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instrument that one is working with. The camera is, really in a sense, very much like a brush to a painter, it is as complete an extension of your hand, an extension of your being, your eye, your totality... You have to realize that most of what you saw was not “edited,” it was just “strung together,” as they say.

—Jonas Mekas

## Imperfect 3-Image Films

Jonas Mekas | USA | 1995 | 6min | 16mm on HD | B&W/Color | Silent

In 1995 Julius Ziz came up with an idea of films made up of only three images. He asked me to contribute some three-image films of my own to a Three Image Film Festival he organized at Anthology Film Archives. This film is my contribution to that genre of cinema. Since my filming style depends a lot on shooting frame by frame, these are imperfect 3-image films.

—Jonas Mekas



불완전한 세 개의 이미지 *Imperfect 3-Image Films*

##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1996 | 4min | SD | Color

영화의 역사는 비가시적이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의 역사이다. 우리에게 영화란 프로젝터가 웅웅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시작된다. 카메라가 웅웅 소리를 낼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는가, 친구!

—요나스 메카스

## 오래된 동화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01 | 6min | SD | Color

제목은 독일 시인 하이네의 시에서 따왔다.

나는 도저히 9.11 테러를 소화할 수가 없었다. 한두 사람의 죽음은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도 2,500명의 죽음에 나는 반응할 수 없었다. 그것은 추상이자 동화였고, 이 때문에 나는 (우리 집 지붕에서 찍은) 나는 9.11 테러에 대한 영화를 동화라는 틀을 통해 9.11 이야기를 보는 듯한 이미지로 촬영했다.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화들처럼, 과거에서 온 이야기에 대해 소녀가 꿈꾸고, 듣고, 상상하는 것처럼.

—요나스 메카스



영화는 100년이 되지 않았다 *Cinema is Not 100 Years Old*

## Cinema is Not 100 Years Old

Jonas Mekas | USA | 1996 | 4min | SD | Color

The real history of the cinema is the invisible history – history of friends getting together doing the thing the love – for us the cinema is beginning with every new buzz of the projector. With every new buzz of our cameras our hearts jump forwards, my friends!

—Jonas Mekas

##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Jonas Mekas | USA | 2001 | 6min | SD | Color

The title comes from a poem of a German poet, Heine.

The 9/11 event was so beyond my comprehension – you can understand and react to a death of one, or two persons, but I could not react to the death of 2500 people – it was an abstraction, a fairy tale – that's why I framed my 9/11 film (shot from my roof) with the fairytale, with the image watching this story, the story of 9/11. Like any other fairy tale coming from the past – by this girl this child dreaming, listening, and dreaming about the tales coming from the past.

—Jonas Mekas



오래된 동화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 할렐루야 더 힐즈

아돌파스 메카스 | 미국 | 1963 | 82min | 35mm on DCP | B&W

<할렐루야 더 힐즈>는 (두 명의 여배우가 연기한) 같은 여성에게 7년간 구애했던 두 젊은 남성(피터 H. 비어드와 마티 그린바움)을 추적한다. 8년째 되던 해에 프러포즈를 하지만 이들은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버림받은 구혼자들은 버몬트의 숲으로 캠핑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희극을 연출하지만 그 사이로 사랑했던 여인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기억이 뚫고 들어온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부터 장 뤽 고다르에 이르는 획기적인 영화적 오마주로 가득찬 아돌파스 메카스의 <할렐루야 더 힐즈>는 영화에 대한 찬가이다. 메카스의 색다른 스타일을 신선하게 본 리처드 라우드는 『사이트 앤 사운드』에 이렇게 썼다. “그리피스 식의 맛과 서정적인 순수함이 있는 이 영화는 상당히 감동적이다... 요컨대 이 영화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완벽하게 미국적인 영화들 중 하나이며, 잃어버린 국경과 젊음의 마법에 대한 신비로운 향수에 무정부주의적 엉뚱함이 곁들여졌다. 또한 『타임』지는 “파격적이고 매우 재미있는 익살극이자 새로운 영화 세계를 가진 첫 입체파적 코미디”라고 극찬했다.

### 아돌파스 메카스 (1925-2011)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아돌파스 메카스는 1949년에 친형인 요나스와 함께 미국에 도착했다. 1954년에 형제가 함께 독립영화에 대한 잡지 『필름 컬처』를 창간하고 필름메이커 조합을 설립했다. 1972년, 바드 칼리지에 영화 분과를 설립하고 2004년까지 영화 과목을 가르쳤다. 그는 직접 리투아니아어를 영어로 번역하며 요나스의 시집을 포함한 몇 권의 책을 자비로 출판했다.



## Hallelujah the Hills

Adolfas Mekas | USA | 1963 | 82min | 35mm on DCP | B&W

*Hallelujah the Hills* follows two young men (Peter H. Beard and Marty Greenbaum) who have for seven years been courting the same woman (played by two different actresses). When they return to propose marriage in the eighth year, they discover that she has already wed another man. The jilted suitors embark on a camping trip in the Vermont woodlands where comic romps are punctuated by bittersweet recollections of the woman. Replete with innovative cinematic homages ranging from Sergei Eisenstein to Jean-Luc Godard, Adolfas Mekas's *Hallelujah the Hills* is a paean to the cinema. Recognizing the freshness of Mekas's offbeat style, Richard Roud wrote in *Sight and Sound*, “The film has a Griffithian flavor, a lyrical naivete, which is extremely touching... In short, this is one of the most completely American films ever made, in its combination of anarchistic wackiness with a nostalgic sense of the lost frontier and magic of youth,” and *Time Magazine* praised the film as “a far-out and very funny farce, the first cubistic comedy of the new world cinema.”

### Adolfas Mekas (1925-2011)

Adolfas Mekas, born in Lithuania,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with his brother Jonas in 1949. Together they founded *Film Culture*, the magazine of independent cinema, in 1954 as well as the Film-Makers' Cooperative. He founded the Bard College film department in 1972 and taught film courses there until 2004. He self-published several books including Jonas' poetry that Adolfas translated into English from Lithuanian.



## 프리 래디컬스: 실험영화의 역사

핍 초도로프 | 미국 | 2011 | 82min | DCP | Color

<프리 래디컬스>에서 소개하고자 한 영화감독들은 1920-1960년대에 영화를 새로운 차원과 방향으로 밀고 나가며 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영화감독들에게 영향을 준 세대이다. 이들은 완전히 자유로웠고 영화에 대한 급진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감행했다. 이들은 상업영화감독, 광고 대행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PD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이 세대가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은 대다수의 관객, 영화와 학생과 교수, 작가, 비평가, 큐레이터 그리고 대중들에게 여전히 생소하다. 하지만 혁신은 단지 주류 미디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실험영화란 무엇인가? 접근과 태도,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관점, 빛과 색과 움직임에 대한 순수한 표현, 그리고 시이다. 추상적일 수도, 구상적일 수도 있으며 세심하게 준비하여 촬영될 수도 있고 감독이 직접 즉흥적으로 찍거나 발견된 필름 스트립을 모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왜 그것이 실험이라고 불리는가?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실험적일지라도 화가나 조각가에게 ‘실험’이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는다.

### 핍 초도로프 (b.1965)

영화감독이자 작곡가인 핍 초도로프는 뉴욕에서 인지과학을, 파리에서 영화기호학을 공부했다. 영화 배급자로서 1994년에 ‘르:브야르 비디오’를, 2005년에는 ‘더 필름 갤러리’를 설립했다. 파리에서 협동자립 필름랩인 ‘아보미나블’을 공동 창립했고, 실험 영화에 대한 인터넷 기반 포럼 ‘프레임 워크스’를 시작했다.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이론과 제작을 가르친다.



##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Pip Chodorov | USA | 2011 | 82min | DCP | Color

The generation of filmmakers I chose to showcase in *Free Radicals* pushed cinema into new dimensions and directions between the 1920s and the 1960s, influencing each other and the filmmakers of today. They were completely free and they had a radical new approach to cinema. They also influenced commercial film directors, advertising agencies and television producers. Although they are heroes for many, there is still little awareness of their work by the vast majority of film audiences, film students and professors, artists, art critics, curators and the general public. Their innovations can often be felt, just under the surface of mainstream media.

What is experimental cinema? It is an approach, an attitude, an independent, personal vision, a pure expression of light, color and movement, poetry. It can be abstract or figurative, filmed with careful preparation or spontaneously, shot by the filmmaker or worked together out of found strips of film. Why is it called experimental? Nobody knows: you would never call a painter or a sculptor experimental no matter how experimental they are.

### Pip Chodorov (b.1965)

Filmmaker and songwriter, Chodorov studied cognitive science in New York and film semiotics in Paris. As a film distributor, he founded Re:Voir Video in 1994, and The Film Gallery in 2005. He is also co-founder of L'Abominable, a cooperative do-it-yourself film lab in Paris, and the internet-based forum on experimental film, FrameWorks. He teaches film theory and filmmaking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 요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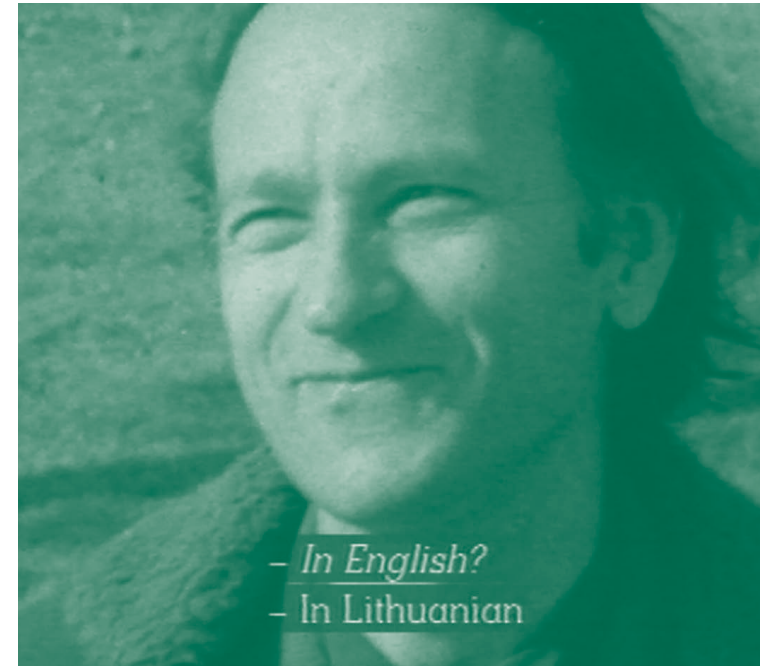
기디언 바흐만 | 미국 | 1968 | 31min | 16mm on SD | B&W

영화 <요나스>는 시네마 베리테의 방식으로 요나스 메카스의 일과를 보여준다. 평화 시위에 참여하고, 센트럴 파크에서 촬영을 하거나 『빌리지 보이스』에 보낼 영화 칼럼 원고를 작성하고, 필름메이커 조합에서 갓 마무리된 편집본을 상영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진정한 뉴욕커인 메카스는 볼렉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마치 한 번에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세밀하게 기록하며 감독 기디언 바흐만은 예술에 열중하고 있는 도시의 놀라운 타임캡슐을 얻어낸다.

## Jonas

Gideon Bachmann | USA | 1968 | 31min | 16mm on SD | B&W

A vérité portrait of Jonas Mekas making his daily rounds, *Jonas* shows us the underground impresario attending a peace rally, filming in Central Park, typing up notes at the *Village Voice* and projecting his latest rushes at the Film-Makers' Cooperative. A true New Yorker, Mekas seems to be everywhere at once, always with a Bolex camera slung over his shoulder. In detailing these routines, director Gideon Bachmann comes away with a striking time capsule of a city bent on art.



## 언더그라운드 뉴욕

기디언 바흐만 | 미국 | 1968 | 51min | 16mm on SD | B&amp;W

미국 문화를 영원히 바꿔놓을 변화가 일어난 격동의 시공간인 60년대 후반 뉴욕의 폭발적인 “언더그라운드”의 이면을 담은 희귀 영상이다. 저널리스트 기디언 바흐만이 이끈 독일 TV 제작진들이 60년대에 일어난 미술, 음악, 시, 그리고 영화 혁명의 중심부를 살피고, 뉴욕의 거리에서 태어난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핵심 멤버들과 인터뷰를 했다.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나타난 문화적 대변동과 베트남 전쟁에 따른 정치적 불만의 고조가 맞물린 상황을 배경으로 바흐만은 요나스 메카스, 쉐리 클라크, 쿠차 형제, 브루스 코너를 비롯한 “언더그라운드 영화”의 주역들을 인터뷰한다. 또한 뉴욕 미술계에서 당시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장소인 앤디 워홀의 팩토리를 방문해 팝아트의 천재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다. —스콧 하먼

## 기디언 바흐만 (1927-2016)

독일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라디오 해설자인 바흐만은 미국에서 자랐으며 뉴욕시립대학교 필름 아카데미에서 요나스 메카스와 동일한 시기에 한스 리히터의 수업을 들었다. 바흐만은 이후 로마에 정착해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1/2>과 <영혼의 줄리엤타>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1971년에 펠리니가 <사티리콘>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감독의 모습을 담아 널리 호평을 받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안녕 페데리코>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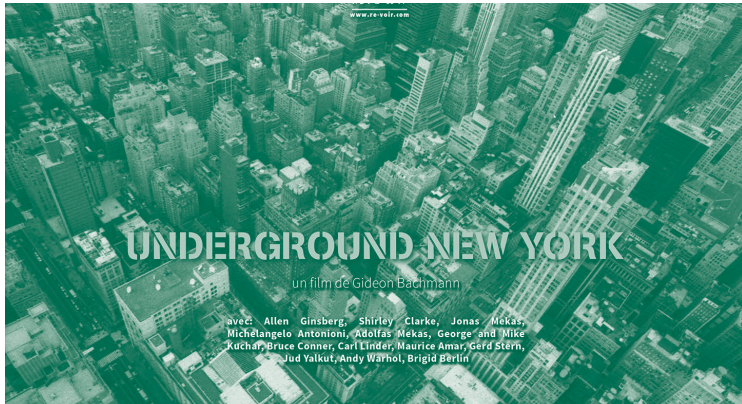
## Underground New York

Gideon Bachmann | USA | 1968 | 51min | 16mm on SD | B&amp;W

“A rare behind-the-scenes view of the exploding New York “underground” in the late sixties, a turbulent time and place that was to change American culture forever. A German TV crew, led by journalist Gideon Bachmann, explores the epicenter of the sixties revolution in art, music, poetry and film and interviews the main players in the “New American Cinema,” that was born on the streets of New York. Against a backdrop of cultural upheaval in all of the arts and growing political agitation against the Vietnam War, Bachmann interviews the most prominent figures in “underground film,” including Jonas Mekas, Shirley Clarke, the Kuchar Brothers and Bruce Conner, and visits the most notorious location in the New York art world of the era - Andy Warhol’s Factory - to conduct an interview with the genius of Pop Art himself.” —Scott Hammen

## Gideon Bachmann (1927-2016)

A German-born filmmaker and radio commentator who grew up in the USA, Gideon Bachmann attended Hans Richter’s classes at New York City College film academy at the same time as Jonas Mekas. Bachmann eventually settled in Rome where he played small roles in Federico Fellini’s *8 1/2* and *Juliet of the Spirits* and, in 1971, while Fellini was making *Satyricon*, he directed a widely acclaimed television documentary portrait of the director at work, *Ciao Federico*.



## 사막의 요나스

페터 셴펠 | 독일 | 1994 | 99min | SD | Color

<사막의 요나스>는 전통적인 의미의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셴펠은 보이스오버를 서술적인 도구로 활용하기보다는 소홀히 지나치는 중요한 역사적 내용들의 짧은 쇼트들 또는 발췌 영상들을 통해 빠른 발췌 영상이나 짧은 숏을 통해 메카스의 삶의 다양한 순간과 활동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 메카스와 필름메이커 조합, 플럭서스,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는 이러한 방식은 각각의 자리에서 메카스가 실제로 어떤 지위를 차지했는지보다 그의 성격에 대해 더 잘 알려준다. 셴펠은 음악과 이미지, 단편들과 대화, 그리고 앤디 워홀, 백남준, 케네스 앵거, 앨런 긴즈버그, 요코 오노, 머스 커닝햄, 알 파치노, 마틴 스코세지, 타일러 미드, 켄브라 팔러와 닉 제드 등과 같은 수많은 문화적 아이콘을 통해 우연히 들은 이야기들의 조합을 활용한다.

## Jonas in the Desert

Peter Sempel | Germany | 1994 | 99min | SD | Color

*Jonas in the Desert* is not a documentary in the conventional sense. Instead of using voice-over as a means of description, Sempel involves us in various moments and activities in Mekas’ life, portrayed in quick excerpts or short shots whose often significantly historical content is graciously downplayed. The methods through which we learn about Mekas and his involvement in the Filmmakers’ co-op, Fluxus and the Anthology Film Archives express little about the actual status of these positions and a lot about Mekas’ personality. Sempel uses a combination of music and images, snippets and conversation, and overheard sentences out of the mouths of many a cultural icon, including Andy Warhol, Nam June Paik, Kenneth Anger, Allen Ginsberg, Yoko Ono, Merce Cunningham, Al Pacino, Martin Scorsese, Taylor Mead, Kembra Pfahler and Nick Zedd.





## 정글의 요나스

페터 섴펠 | 독일 | 2013 | 99 min | SD | Color

메카스의 영화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섴펠의 이전 영화들이 메카스의 작업에 집중했다면 이 영화는 90년대에 접어들어 이후에도 여전히 작업을 하고 현대 사회와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는 메카스의 삶에 더 집중한다. 이 영화는 메카스가 공동으로 창립한 앤솔로지 필름아카이브도 함께 살펴본다.

### 페터 섴펠 (b.1954)

페터 섴펠은 스스로를 시인이라 부르는 독일 태생 영화감독이자 사진 작가이다. 섴펠은 지난 30년간 펑크록 가수 니나 하겐, 헤비메탈 밴드 모터헤드의 레미 킬미스터, 닉 케이브, 부토 안무가인 오노 가즈오 같은 음악가나 예술가들의 “개인적 초상”을 제작했다.

## Jonas in the Jungle

Peter Sempel | Germany | 2013 | 99 min | SD | Color

The third installment of a long-term series of films about Mekas. The earlier films were focused more on Mekas' work, while this film is more about the life of Jonas Mekas as he enters his 90s, still working, and still maintaining relevance in the modern world. The film also explores the Anthology Film Archives, of which Mekas was one of the co-founders.

### Peter Sempel (b.1954)

Peter Sempel is a German-born filmmaker and photographer, though he calls himself a poet. For the past thirty years, Sempel has been producing “personal portraits” of musicians and artists such as Nina Hagen, Motörhead's Lemmy, Nick Cave, or Butoh dancer Kazuo Ohno.



## 계절들

요나스 메카스 | 미국 | 2017 | 71min | 2 channel video | Color

<계절들>은 뉴욕의 자연 주기에 바쳐진 더블 스크린 비디오이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2개의 트랙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장면들을 모아 일련의 새로운 몽타주로 엮어내며 메카스의 전체 작품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풍성한 리듬을 가진 이 한 시간 길이의 무성 영화를 통해 관객들은 뉴욕의 색깔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간 알아볼 수 있는 시대 혹은 인물들이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의 콜라주 속에 함께 나타난다. 순간, 계절, 그리고 시간은 하나의 독특한 영화적 지평선을 따라 초점이 맞춰진다.

## The Seasons

Jonas Mekas | USA | 2017 | 71min | 2 channel video | Color

*The Seasons* is a double-screen video dedicated to the cycles of nature in New York City. The 2 tracks that compose the piece revisit the entirety of Mekas' production under this light, intertwining scenes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days in a series of new montages. Throughout a one-hour long silent movie full of rhythm, the spectator can indulge in the colors of New York. Eras and personalities, recognizable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appear together in a collage of fixed and moving images. Moments, seasons, and time, become the focus along one singular cinematographic horizon.







## 협력

### 르:브아르 비디오 (파리)

르:브아르 비디오는 미국 출신 감독 핍 초도로프에 의해 1994년 파리에 설립되었으며, 고전 및 현대 실험영화의 DVD를 제작 및 배급하고 있는 레이블이다. 다다이스트부터 초현실주의, 레터리스트 운동, 미국 아방가르드 시네마, 플럭서스, 프랑스 잔지바 영화, 다이어리 영화, 예술 장편영화, 애니메이션 및 핸드페인팅 필름 등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작품성이 높은 백여 편의 다양한 영화들을 보유하고 있다.

### 핍 초도로프

핍 초도로프는 어린시절부터 영화감독이자 작곡가로 활동해왔다. 뉴욕 출신인 핍은 뉴욕과 함께 제2의 고향이기도 한 파리를 터전으로 예술가, 역사학자, 배급사, 필름 액티비스트 등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가을부터는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이론과 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약 24편의 실험영화를 만들었으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감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 12편을 제작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 다큐멘터리 <프리 래디컬스: 실험영화의 역사>가 있다. 핍 초도로프는 로체스터대학에서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영화기호학을 공부했다. 1988년부터 오리온 클래식(뉴욕), UGC, 라이트 콘(파리) 등의 배급사에서 활동했으며 칸느국제영화제 아메리칸 파빌리언의 멘토 겸 스태프로 매년 활동하고 있다. 파리에서 르:브아르와 ‘필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DIY 필름랩인 아보미나블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Collaborate with

### RE:VOIR VIDEO (PARIS)

Founded in Paris in 1994 by American filmmaker Pip Chodorov, RE:VOIR is a label that publishes and distributes DVDs of classic and contemporary experimental cinema. The catalogue includes over a hundred titles: films from the Dadaist, Surrealist and Letterist movements, from the American avantgarde, Fluxus, the French Zanzibar films, diary films, arthouse features, animated works and handpainted films.

### Pip Chodorov

Pip Chodorov is a filmmaker and songwriter since childhood. Artist, historian, distributor and film activist, he divides his time between his native New York, his adopted home Paris, and Seoul where he teaches film theory and filmmaking at Dongguk University. He has made two-dozen experimental films and a dozen documentary portraits of filmmakers including the feature documentary *Free Radicals: A History of Experimental Film* (2011). Chodorov studied cognitive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Rochester and film semiotics at the Sorbonne in Paris. He has worked in film distribution since 1988, for Orion Classics (New York), UGC and Light Cone (Paris), the American Pavilion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he founded Re:Voir and The Film Gallery in Paris where he also co-founded in 1996 the cooperative do-it-yourself film lab L’Abominable.

### 필름 제공처 Print Source

The Film-Maker’s Co-op  
75 Park Ave. South, 6th Floor,  
New York, USA  
+1 212 267 5665  
info@film-makerscoop.com

Centre de Cultura Contemporània  
de Barcelona  
Carrer de Montalegre, 5, 08001  
Barcelona, Spain  
+34 933 064 100  
info@cccib.org

Cinédoc Films  
18 Rue de Montmartre, 75001 Paris,  
France  
+33 (0)1 42 33 10 64

Light Cone  
157 Rue de Crimée, 75019 Paris,  
France  
+33 (0)1 46 59 01 53  
lightcone@lightcone.org

Re:Voir  
43 Rue du Faubourg St-Martin,  
75010 Paris, France  
+33 (0)9 54 22 51 11  
info@re-voir.com

Mekas Nihon Nikki no Kai  
(Mekas Japan Diary Group)  
c/o Tetsuo Kinoshita  
2-18-1 Hiyoshi-honcho, Kohoku-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223-0062  
+81 (0)45 562 4503  
tetsuoki@aol.com

큐레이터	김은희
협력 큐레이터	핍 초도로프 (르:브아르)
큐레토리얼 어시스턴트	김신재
번역	설경숙, 유지원, 정두희, 아론 컴벌리지
기술담당	류원규
디자인	김은지 (데미그래픽스)
Curator	Kim Eunhee
Co-Curator	Pip Chodorov (Re:Voir)
Curatorial Assistant	Kim Shinjae
Translators	Suan Seol, Yu Jiwon, Chung Doohee, Aaron Cumberledge
Technical Manager	Ryu Wonkyu
Graphic Design	Kim Eunji (ant graphics)

#### 관람시간

월, 화,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 MMCA필름앤비디오 관람시간

목, 금, 일: 10am—6pm  
수, 토: 10am—9pm

####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6pm—9pm)

#### 주차

운영시간(매일): 8am—11pm  
시간당 2,000원

####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 협력 르:브아르

#### Opening Hours

Mon, Tue,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 MMCA Film & Video Opening Hours

Thu, Fri, Sun: 10am—6pm  
Wed, Sat: 10am—9pm

####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Under 24s or over 66s: Free  
Free admission every Wednesday &  
Saturday from 6pm—9pm

#### Parking

Daily Hours: 8am—11pm  
2,000 won per hour

####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Collaborate with

**RE:VOIR**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  
02 3701 9500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http://www.mmca.go.kr)

[newsletter.mmca.go.kr](mailto:newsletter.mmca.go.kr)

[youtube.com/mmcakorea](https://youtube.com/mmcakorea)

[twitter.com/mmcakorea](https://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https://facebook.com/mmcakorea) (Kor)

[facebook.com/nmmcakorea](https://facebook.com/nmmcakorea) (Eng)